

인천·대전·시흥 분양권 전매 금지

8월부터 수도권·광역시, 소유권 이전 때까지 못팔아
집값 불안 차단책...법인 거래 '자금계획서' 제출해야

대전과 울산, 광주 등 지방 광역시에서 분양하는 민간 아파트도 입주 때까지는 분양권을 팔 수 없게 됐다. 정부가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시행했던 분양권 전매 금지를 8월부터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로 확대키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지방광역시 도시지역 민간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전매 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앞으로는 소유권 이전 대기 시까지로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8월 중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 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규제지역보다 짧은 분양권 전매를 목적으로 청약하는 투기 수요 유입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 현대건설이 3월 인천 송도국제 도시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 아파트는 804가구 모집에 무려 5만 8021명이 몰려 송도 분양 사상 최고인 평

균 72.17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달 분양한 경기 시흥시 '시흥 장현 영무예다움'도 평균 50.2대 1이라는 시흥시 역사상 최고 경쟁률을 올렸다. 지방 광역시 청약시장도 투자 열기가 뜨겁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분양한 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조치로 대전과 울산, 부산, 광주 등 지방 광역시와 인천, 경기 안산·시흥·오산 등 수도권 내 비규제지역에서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소유권 이전 대기 때까지 전매를 할 수 없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 행위 제한 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 당점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투기성 법인 주택 거래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의 부동산 매매·임대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부동산 매매업과 임대업 법인 설립이 지속적으로 늘고, 전체 주택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최

근 시장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합산과세 등 개인에 적용되는 대출·세제상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법인 등을 설립하고 주택을 매수하는 법인 거래가 빠르게 늘고 있다. 3월 기준 인천(11.3%)과 오산(13.2%), 평택(10.9%) 등은 법인 비중이 두 자릿수로 증가했고 안산(7.8%)과 시흥(6%) 등도 이전에 비해 법인 비중이 확대됐다.

국토부는 법인 거래에 대한 정보 수집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한 신고서식을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이 새로 마련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현재 규제지역 내에선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에선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법인의 경우 거래 지역과 가격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조치가 규제 사각지대의 투기 수요까지 막아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로 보이지만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선영 기자 moon@



코로나19 고용위기 현실로 코로나19로 구직 시장에 먹구름이 짙어졌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0년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9933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상담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ijjak@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받는다

저소득 구직자 6개월간 월 50만원
국회 환노위 '취업 촉진법' 통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을 가결했다. 환노위는 11일 고용소위를 열어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원하는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임시국회가 15일 끝나기 때문에 20

대 국회 내 처리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회기 종료 직전인 14, 15일 본회의를 열거나 다음 주 중 추가 임시회를 소집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여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소위는 확대 대상 범위를 놓고 여야 간 의견 차를 드러내 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제출된 법안만이라도 이달 안에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재정건정성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6시간 반 만에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결국 고용보험법의 경우 '예술인'만 확대 대상에 적용키로 했다. 소

위는 이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선 21대 국회로 넘기기로 했다.

고용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은 소위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해당 법안들이)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전망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수고용자의 경우 범위가 너무 넓어 오늘 통과시키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플랫폼 노동자와 함께 특수고용자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에서 재의논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美 재무장관>

므누신 "美 실업률 이미 25%...더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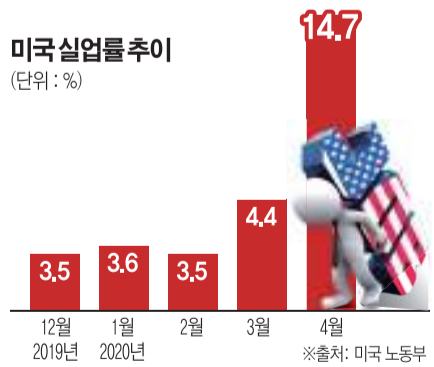
경제총괄 3인방, 비관론 쏟아내
4월 14.7%로 2차 대전후 최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미국의 지난달 실업률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상황까지 왔지만, 아직 바닥을 논하기엔 이르다. 미국 백악관 내부에서까지 미국 내 고용 상황이 당분간 더 악화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이어지고 있다.

8일(현지시간) 발표된 4월 미국 실업률은 14.7%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같은 달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약 2050만 개 줄었는데, 이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 폭이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3인방은 일제히 비관론을 쏟아냈다. 케빈 해시 미국 백악관 경제 선임보좌관은 10일 CBS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활동 정지 해제로 경기가 올 하반기 회복하기 전에 실업률이 5월이나 6월 20% 이상에서 정점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량의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를 바탕으로 한 추정"이라고 설명했다. 2일까지 일주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316만9000건으로, 최근 7주간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3350만 명에 이르렀다.

같은 날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도 폭스뉴스 한 프로그램에서 "4월 고용통계 집계 이후 700만 명이 더 실직하고, 구직을 포기한 사람도 있어서 실제 실업률은 이미



25%에 가까울 수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그는 고용 관련 통계에 대해선 "개선행기 전에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역시 ABC방송에서 "고용 통계에서 '희망의 빛'은 해고된 사람의 약 80%가 일시 휴직 혹은 일시 해고라는 것"이라고 지적한 후 "그렇더라도 5월은 매우 엄격한 수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변효선 기자 hsbyun@

고3 등교 20일로 1주일 연기 "대입 전형일정은 변경 없어"

유치원·초중고 모두 순연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초·중·고등학교의 등교 일정이 1주일간 순연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13일로 예정됐던 고3 학생들의 등교 시기를 1주일 미룬 2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머지 고1·2학년과 중학교, 초등학교의 등교 일정도 각각 1주일 미뤄진다. 학년별로는 △5월 27일 고2, 중3, 초1·2, 유치원 △6월 3일 고1, 중2, 초3·4 △6월 8일 중1, 초5·6 등이다.

박 차관은 "고3 수험생들의 경우 5월 말 이전까지만 등교하면 대입 일정에 대한 추가 변경은 없을 것"이라면서 "14일로 예정된 학력평가는 20일 이후로 연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등교 일정 연기 결정은 이번이 5번째다. 앞서 교육부는 2월 23일 전국의

초·중·고교와 유치원의 등교 개학을 3월 9일로 처음 연기한 데 이어 같은 달 2일 2주일간 추가 연기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자 3월 17일 3차로 개학을 연기했으며 31일엔 4차 개학 연기를 하면서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발표했다. 이후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자 이달 4일 교육부는 13일 고3을 시작으로 순차적 등교 수업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으로 등교 수업 일정이 다시 순연됐다. 이날까지 나흘 만에 이태원 클럽 관련 감염자가 최소 90명에 이르는 상황이다.

등교 수업 일정이 1주일간 미뤄졌으나 다음 주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등교 수업을 강행할 경우 추가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원단체 등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등교 수업은 선부른 결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손현경 기자 son89@

“ICT업계 불균형 해소 위해 규제 개혁에 힘쓰겠다”

미래한국당 이영

“현장에서 느낀 우리 ICT 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불균형’이다. 적절한 규제 개혁을 통해 ICT를 비롯, 벤처·중소기업계의 중심을 잡아가겠다.”

이영 미래한국당 당선인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투데이와 만나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이 당선인은 21대 국회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를 대변할 유일한 사람으로 꼽힌다. 데이터보안업체 ‘테르텐’을 창업해 20여 년간 이끌어온 현장 출신이자,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 등 업계를 대표해본 적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부담도 상당하다.

이 당선인은 “여러 선배들의 제안을 받고 4차 산업혁명의 모멘텀인 지금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것도 귀한 기회라 생각해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며 “막상 당선이 되고 나니 축하인사만큼이나 ‘유일하다’, ‘잘 대비해 달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ICT 업계의 문제점으로 ‘불균형’을 꼽았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특히 크다는 것.

이 당선인은 “2018년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발간한 리포트에 따르면 IT 관련 중소기업이 20년 이상 생존할 가능성은 0.3%에 불과하다”며 “소기업 중심 소프트웨어 시장과 대기업 중심 하드웨어 시장의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 주도 혁신은 강력하긴 하지만 인공지능(AI)·빅데이터·블록체인에 연구개발(R&D) 자원이 쏠려 있다”며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경우나 짧은 시간 동안 자원을 퍼부어야 하는 경우를 나누지 않고 강하게 끌어당기지만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ICT 발전을 위해선 그 무엇보다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이 당선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산업계와 정치계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며 “소프트웨어 시장을 키워 하드웨어 시장과 융합한다면 지금보다 더 큰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세대 벤처인으로서 규제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당선인은 “1990년대 후반의 벤처붐은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들이 벤처기업을 세워 기술적 트렌드를 바꾸거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며 “지금도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세대가 붐을 일으키려 하고 있지만 다양한 규제가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선인은 “지금은 ‘섬싱 뉴(Something New)’가 필요한 시대 아니다”며 “규제를 해결해 밑에서부터 활력을 받는, 사회가 진짜로 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정부의 ‘제2벤처붐’ 정책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이었다. 벤처업계 내부의 동력이 크지 않은 상황인 만큼 규제 완화를 통해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당선인은 “보통 ‘붐’은 산업계에서 먼저 시작하고, 여기에 정부가 화력을 집중해 가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도우면서 일어난다”며 “현재 우리나라 경기도 좋지 않고 ‘청년 실업률도 높는데, 역지로 벤처 붐이 얼마나 일어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작은 정부’로서 벤처 활성화를 위해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덧붙혔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경기가 침체한 만큼, 국내 ICT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책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자본이 충분한 대기업은 버틸 수 있지만 혁신 역량을 갖춘 기업이 현금이 부족해 고사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어



중소 중심 소프트웨어 시장 키워 대기업의 하드웨어 시장과 융합 지금보다 더 큰 결실 맺게 될 것

여성 기업인 창업환경 개선 노력 벤처·중기인 출신 당선인들과 업계 현안 해결 위해 초당적 협력

약력 광운대학교 수학과 졸업, 카이스트 대학원 암호학 박사과정 수료 /2000년 사이버보안회사 테르텐 설립 / 제9대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등 역임

는 정도 어려운 시기를 지날 수 있는 지원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성 벤처인으로서 여성의 창업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지금 여성 벤처기업은 업계에 10% 수준”이라며 “여성 벤처 생존율이 투자 대비 낮다”고 지적했다.

이 당선인은 이런 상황을 “멀리서 보면 폭신한 잔디밭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풀이 엉켜 있는 상태”라고 빗댔다. 여성 벤처인들의 사정이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사업을 이어나가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미다.

그는 “성공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들이 창업이란 게임에 쉽게 뛰어들지 못한다”며 “의사결정권자 대부분이 남성이고 젠더적인 이해도가 높지 않은 유교적인 사

회시스템이 여성 창업인들을 완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20~30대 기술창업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며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창업하던 과거와 달리 이공계 출신으로 바로 창업에 나선 젊은 벤처기업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1호 법안’에 대해 묻자 이 당선인은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당 내부에서도 언론에서도 ‘1호 법안’에 대해 많이 물으시는데 그러다 보니 이 법안의 무게감이 커지고 있다”며 “저는 법안을 만들어 본 사람도, 관련 일을 해본 사람도 아니라 성급하게 법안을 발의하기보다는 공부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 법안을 제시하기보단 산업 현장에서 오랜 숙원사업처럼 생각해온 문제들과 현안을 법안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을 찾고 있다”며 “사업가였던 만큼 실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 감각을 살려 중소·벤처기업계 당선인들과 적극 협업하겠다는 계획도 빼놓지 않았다. 이 당선인은 “당연히 협업할 것”이라며 “당보다 ‘하나의 대한민국’이란 생각으로 협업하고 솔루션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스스로를 정치적인 생태계보단 ‘업체인’으로 평가하는 만큼 국회 인פק, 여야를 초월해 협력할 것”이라며 “기술 또는 벤처기업에 관한 모임을 조직해야겠다” 구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년 뒤 ‘국회 밖’에서 칭찬받는 국회의원이란 평가를 듣고 싶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ICT·벤처·여성 등 그가 속했던 업계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집중하겠다는 포부다.

이 당선인은 “여성으로서, 과학기술 업계인으로서, 벤처인으로서 국회에서 일을 해나간다면 임기 말미엔 국회 밖, 제가 속한 업계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대원 기자 leedw@

우리 모두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까다로운 원칙과 기본을 지키며,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그룹

개인 위생 매뉴얼 준수

위생 전문가의 관리

철저한 소독·살균



반도체 18%·車 80% ↓... “수출 절벽, 연말까지 간다”

5월 1~10일 수출 ‘반토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떨근 폭탄에 한국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그르기 상태다. 이달 초 수출액이 지난해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져 수출 공포는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하반기까지 부정적 영향이 지속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냈다.

◇5월 1~10일 수출, 품목·국가 일제히 부진 = 코로나19 수출 공포는 지난달부터 시작됐다. 4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3% 감소한 369억2000만 달러에 그쳤다. 문제는 이달 들어 수출 부진이 더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이 6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3%(59억6000만 달러) 감소했다. 전년 대비 반토막 수준이다. 수출 주력 품목은 대부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선박(55.0%)을 제외한 반도체(-17.8%), 무선통신기기(-35.9%), 석유제품(-75.6%), 승용차(-80.4%) 등이 부진을 면치 못했다.

수출 상대국별로는 중국(-29.4%), 미국(-54.8%), EU(-50.6%), 베트남(-52.2%), 일본(-48.4%), 중동(-27.3%) 등 주요 시장에서 일제히 수출이 위축됐다.

코로나19의 영향이 품목과 시장을 불문하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에 따른 글로벌 교역 부진으로 수입액 역시

수출액 69억 달러... 전년비 46% ↓
美·EU시장 수출량 50% 이상 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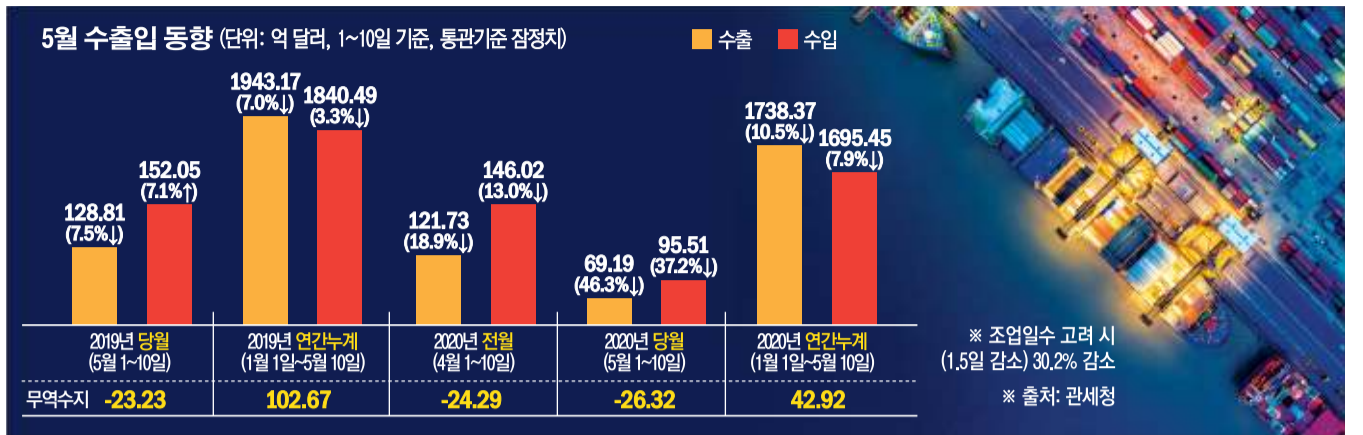
전문가 “6월 세계경제 정상화에도 소비심리 회복 더뎠다 장기화 불가피”

크게 감소했다. 1~10일 수입액은 9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2%(56억5000만 달러) 줄었다. 이에 따라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 규모는 약 26억30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적자액 24억3000만 달러보다 적자폭은 2억 달러 확대됐다.

◇문제는 장기화... “올해 연말까지 간다” =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수출 부진은 올해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 위축이 지속되는 한 수출을 살릴 방법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수출이 부진할 것이라는 건 이미 예상이 됐던 거고 앞으로 얼마나 타격을 입고 얼마나 오래갈 것이냐의 문제”라며 “현 상황이 하반기 내리 지속된다고 보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유럽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 수출 성적이 달라질 수 있지만 올해 연말까지는 갈 것으로 본다”며 “설령 6월에 글로벌 경제가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소비심리가 그렇게 금방 돌아



오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수출 부진에 대응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점이 뼈아프다. 정 교수는 “(수출 부진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특히 대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글로벌 상황이 너무 안 좋다”고 말했다.

정부도 코로나19에 따른 수출 타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성운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가 수요 충격을 함께 겪고 있어서 선진국의 금융 충격이 주요 원인이었던 2008년보다 이번이

더 어려울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수출 부문은 더 깊고 장기화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방역 모범국으로 떠오른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성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출 부문은 더 깊고 장기화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다만 기업이 안정적인 부품 확보를 추구하면서 공급 라인을 조정하면 오히려 한국에 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유럽연합(EU)의 주요 공장이 감

염증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국 등에 있는 공장을 대거 이전하는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이 이뤄질 경우 단기적으로는 한국도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나 오히려 해외 공장을 국내에 유치하는 기회도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성 장관은 “GVC는 이제 탄력 회복성과 신뢰성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면서 “이번 사태는 한국이 핵심 부품·소재 공급에 있어 아시아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한달 새 13만 명 일자리 잃어 4월 실업급여 1兆 ‘역대 최대’

올해 12兆 소요... 3차 추경 필요

지난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 지속 여파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에도 직장을 잃어 새롭게 실업급여를 신청한 인원이 크게 늘면서 3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갈아 치운 것이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고용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증가폭이 4월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10만 명대로 주저앉았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0년 4월 노동시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3%(3만2000명) 늘어난 12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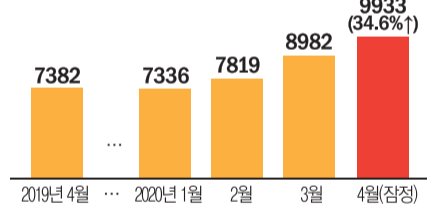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한 고용 충격이 본격적으로 반영된 3월(15만6000명)보다는 신청자 수가 적지만 4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다.

산업별로는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른 대면 기피로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6400명)에서 신규 신청이 가장 많이 증가했고, 이어 사업서비스(+5000명), 도소매(+4400명), 제조업(+4100명), 건설업(+3100명) 등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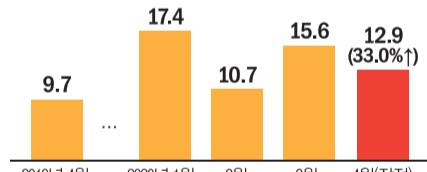
지난달 신규 신청자 증가와 지급기간 연장, 수혜금액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실업급여 수혜자는 전년보다 13만1000명 늘어난 65만1000명, 실업급여 지급액은 2551억 원 늘어난 9933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수혜자와 지급액은 3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달에는 지급액이 1조 원을 넘어 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분간 지급액은 9000억 원

구직급여 지급액 추이 (단위: 억 원)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 (단위: 만 명)



※ ()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 출처: 고용노동부

후반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관련 예산(9조5000억 원)보다 많은 12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3차 추경을 통해 추가 재원을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77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16만3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10만 명 대로 내려간 것은 4월 기준으로는 처음이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작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0만~50만 명대를 유지해오다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이 본격적으로 반영된 3월엔 25만3000명으로 확 내려간 바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3만9700명 줄었고, 사업서비스(-2만6000명)와 보건복지(+9만3900명), 숙박음식(+2300명)과 교육서비스(+4800명) 등 대부분의 서비스업도 감소 또는 증가폭 둔화를 보였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힘내라_대구경북 #힘내라_대한민국 #한국가스공사가_함께_응원합니다

이 새싹은
나중에 울창한 숲을
만들거립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연소 시 공해물질이 거의 없는 무공해 청정에너지 천연가스로
건강한 지구를 만들어 갑니다.

한국가스공사

‘연휴·클럽’에 뒤통수 맞은 방역... 2차 유행 막아야

이태원 클럽 확진 최소 86명... 전국 단위 확산 방역당국 초비상 방문·접촉자 찾아내는 게 급선무... 신용카드 정보 지자체에 전달

이달 초 연휴 기간 클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2차 유행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클럽 방문자와 접촉자를 찾아내는 데 주력하는 한편 협조가 늦어질 경우 강도 높은 대책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일 정오까지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86명으로 집계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51명, 경기 21명, 인천 7명, 충북 5명, 부산 1명, 제주 1명 등이다. 밀폐된 공

간에서 감염이 이뤄진 것은 물론 클럽 방문자가 전국으로 흩어져 있어 2차 유행까지 우려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태원 클럽 최초 확진환자 발생 이후 감염 확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방역당국은 율기를 발생 가능한 2차 유행과 관련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태원 관련 집단 발병이 2차 유행으로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이 확보한 지난달 24일부터 6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단위: 명, 11일 낮 12시 기준)

서울	경기	인천	충북	부산	제주
51	21	7	5	1	1

※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

일까지 이태원 5개 클럽 방문자는 지금까지 5517명이다. 이 가운데 2405명은 연락이 닿은 반면 3312명은 연락 불가 상황이다. 또 클럽 방문자 명단이 정확하지도 파악되지 않고 있어 이들을 찾아내 진단검사를 받게 하는 것이 급선무다.

윤 총관반장은 “질병관리본부가 여신협회를 통해 신용카드 정보를 조회하고 지자체에 전달하고 있다”며 “통신기거국 조회는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해 전국에 재난안

전문자를 보내 이태원 방문 이력이 있으면 검사를 받도록 안내를 했다”고 설명했다. 클럽을 비롯해 확진자가 발생한 기간 이태원을 방문한 사람에 대해서는 진단검사가 무료로 이뤄진다. 결국 방문자들의 자발적인 검사와 격리가 가장 중요하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앞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중이용시설 출입자 명단 허위 작성에 대한 책임 문제와 이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방문자의) 협조가 늦어질 경우 정부로서는 전체의 안전을 위해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우선 유흥업소의 영업과 방

문자들의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내린 사실상 영업 중지인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과 클럽 방문자 대인접촉 금지 행정명령은 대구와 부산 등에서도 연이어 내려졌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유흥시설 운영 자제 권고와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외에 집합금지 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윤 총관반장은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전국에서 유흥시설을 폐쇄하도록 하기보다는 지자체가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며 “접촉금지 명령에 대해서는 대인의 범위, 실효성 담보 방안 등에 있어서 법리적으로 볼 부분이 있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성윤모(오른쪽 두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차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에서 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참석자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이태원 클럽, 방역지침 위반했다면 구상권 청구할 것”

치료비 최소 수억원... 연락 피하는 방문자 처벌 검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가 발생한 이태원 클럽들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공공보건정책관)은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지방자치단체(서울 용산구)에서 점검을 통해서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이들 클럽이 지침을 준수했는지, 어졌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만약 방역당국에서 내린 지침에 따라 영업을 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태원 클럽의 지표환자로 지목되는 용인 확진자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클럽에서 마스크를 거의 착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럽 방문자 대다수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클럽 측에서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명단 작성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했다면, 해당 클럽에서 발생한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선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한국의 코로나19 환자 1인당 일평균 치료비는 경증환자 22만 원, 중증도는 65만 원 수준이다. 평균 입원일수가 경증 15일, 중증도 18.4일, 중증환자 77.4일인 점을 고려하면, 이태원 집단감염에 따른 치료비는 수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고령자나 기저질환자에 대한 추가 전파로 중증환자가 발생하면 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방역당국은 클럽 방문자들이 고의로 지자체나 보건소의 연락을 피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처벌을 검토할 계획이다.

단 우선은 클럽 방문자들의 자발적인 진단검사를 유도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여러 경로를 통해 커뮤니티 내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안내·홍보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벽들을 많이 없애줘야 할 것 같다”며 “그게 개인정보가 될 수도 있고, 접근성이 될 수도 있고, 지리적인 또는 시간적인 접근성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해소해서 검사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끔 지자체와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日 수출규제 3대 품목 공급 안정화”

산업부, 100대 핵심품목 점검 美·유럽 등 대체 수입선 마련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에 대해 실질적 공급 안정화를 달성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차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를 열고 지난해 8월 소재 부품장비 경쟁력강화 대책을 통해 마련된 100대 핵심품목의 공급 안정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업별 향후 전략을 듣고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 민관 합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8월 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추진한

결과 불산액, EUV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수출규제 3대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 안정화에 뚜렷하게 큰 진전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성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미국, 중국, 유럽산 제품을 대체 투입하고, 미국의 듀폰사 투자유치, 솔브레인사 생산 확대 등 다각적 방안을 총동원해 실질적 공급안정화를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00대 핵심품목과 관련해서는 수급 불확실성 속에서 △재고량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1개월에서 3개월 내외’로 점진적 확충해 재고 보유 수준을 기존 대비 2~3배 수준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필름소재 등 76개 품목은 유사 스펙을 보유한 미국, 유럽산 제품을 집중 테스트하여 대체수입선 마련에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13건의 인수합병(M&A)과 7340억 원 규모의 투자프로젝트를 통해 48개 품목은 국내 생산 역량도 대폭 확충했다.

성장관은 “민관이 합심한 이번 일본 수출규제 대응은 소재부품장비 공급 안정화의 진전 외에도 우리에게 도전과 자신감의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성장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GVC 재편 대응 강화도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공급망의 심각한 위협으로 우리 기업들에 코로나19 이전(BC)과 이후(AC)는 극명하게 다를 것”이라고 피력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밸류체인의 실시간 가시성(Visibility)을 조속히 확보하고, 복수·대체 공급처 확보와 경제권역별로 공급망을 분산하는 등 밸류체인의 완결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코로나 여파 세계식량가격 3개월 연속 하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수요 감소와 물류 차질로 세계 식량 가격이 3개월 연속 하락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세계식량가격 지수가 전월보다 3.4% 하락한 165.5포인트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농식품부가 인용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자료에 따르면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앞서 4개월 연속 오른 뒤 3개월 내리 하락했다. 2019년 1월 이후 최저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2% 낮은 수준이다.

품목별로 곡물은 안정적인 수준이며 유제품, 유제품, 육류, 설탕 등 전 품목군의 가격이 하락했다.

곡물은 밀과 쌀을 제외한 주요 품목 가격이 내렸다. 밀은 전월 대비 2.5% 상승하였는데, 러시아가 곡물 수출 할당량(쿼터) 소진에 따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이외 국가에 대한 수출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옥수수는 사료 및 바이오 에탄올 수요

가 감소하고, 남미의 신규 수확 물량이 추가돼 공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했다. 쌀 가격은 일부 국가의 임시 수출제한과 물류장으로 전월 대비 7.2% 상승했다.

육류는 전월 대비 2.7% 하락했다. 육류 가공이 감소했지만 경제불황, 물류장애 및 봉쇄로 인한 외식 분야 수요 감소로 재고·수출 공급량이 증가했다. 유제품도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버터, 탈지분유 및 전지분유 가격은 수입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재고와 출구공급량이 증가해 10% 하락했다. 다만 치즈 가격은 오세아니아의 생산량이 계절적 요인으로 감소하면서 완만히 반등했다. 유지류 가격은 5.2% 하락하며 2019년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유제품 가격은 4개월 연속 상승세가 하락세로 반전됐다. 설탕은 주요 국가의 격리 조치로 외식 수요가 줄어든 데 따라 가격이 14.6% 급락했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바다에도 ‘윤창호법’...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 취소’

해사안전법 등 개정안 19일 시행

바다의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해사안전법, 선박직원법 개정안이 이달 19일부터 시행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횡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된다.

1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 법률은 2019년 2월 28일 발생한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의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계기로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음주 정도에 따른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0.03~0.08%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0.08~0.20%는 징역 1~2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 0.20% 이상은 징역 2~5년 또는 벌금 2000만~3000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현행은 5톤 이상 선박운항자나 도선사가 음주운항 중 적발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상습 음주 운항자와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벌칙도 강화했다. 앞으로는 음주운항

이나 음주측정 거부가 2회 이상이면 징역 2~5년이나 벌금 2000만~3000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선박 음주운항 시 해기사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인 경우와 음주측정 거부 1회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6개월을 처분하고 첫 음주운항이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2회 이상 위반 및 또는 인명피해 사고를 낸 경우, 음주측정을 2회 이상 거부할 때는 바로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세금 체납 사업자 도산위기로 내모는 국세청

일부 납부 후 사업재개 요청 목살... 불복소송 중 거래처 채권 압류

국세청이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납세자가 체납액을 완납했음에도 이를 제때 압류 해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에는 세수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채권 확보에 나선 것으로 드러나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사업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표방하고 있지만, 세금이 체납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의 지속성 여부를 떠나 너무나도 가혹한 조세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본보 취재 결과, 인천지방국세청 산하에 소재하고 있는 A법인은 2017년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약 5억2000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받았다. 이후 A법인은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에 대해 매월 수백만 원씩 분할 납부함과 동시에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불복소송을 제기,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하지만 인천국세청은 최근 A법인에 분할 납부 금액을 상향 조정해 통보한 후 납세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A법인과 거래 관계에 있는 B·C·D법인에 대한 채권(약 5억 원)을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결과적으로 A법인 대표 E 씨가 100%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인 점을 고려할 때 E 씨 개인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A 법인) 거래처에 대해 채권 압류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E 씨 측은 "세금을 지속적으로 분할 납부해 왔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불복소송을 진행 중인데 과세관청은 거래처에 대해 채권압류 및 납부독촉을 강행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다. 또한 그는 "올해 초 과세관청에서 분할 납부 금액을 상향 조정해 통보했다"면서도 "과세관청이 조정·통보한 금액은 현실적으로 납부하는 게 힘들어 나름대로 적정 금액을 납부한 후 거래처에 대한 압류 해제를 간곡하게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E 씨에 대한 간곡한 부탁을 묵살, 거래처에 대한 채권압류를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인천국세청에 수차례 연락을 했으나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국세청 전 고위 관계자는 "과세 관청이 거래처에 대해 채권을 압류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해당 법인이 불복소송을 진행 중이고, 분할 납부 의사가 충분히 있음에도 이를 묵살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마스크 200만장 美 지원 정부가 11일 '한미 코로나19 대응 공조' 차원에서 미국 정부에 마스크 200만 장을 긴급 지원했다. 사진은 이날 새벽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한 미국행 항공기에 마스크를 적재하는 모습.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트위터 캡처

민주당, 이제는 '당권 경쟁'

이낙연 등판 여부 최대 관심 송영길·김부겸 등 출마 타진

177석의 슈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신임 당권주자가 누가 될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다. 이해찬 대표가 임기를 마무리하고 8월 전당대회가 치러질 전망이다.

인팍의 관심은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당 대표 출마 여부로 쏠리고 있다. 대권 잠룡 1위로 꼽히는 이 위원장이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서 당선증을 따낸 것은 물론, 코로나19 속 총선을 전폭적인 승리로 이끌면서 '이낙연 독주론'도 힘을 실고 있다.

이 위원장이 당권에 도전할 경우 분리 규정에 따라 대선 1년 전인 내년 3월에 사퇴해야 한다. 당내에서는 이 규정을 손보자는 견해도 나오고 있으나, 우선 그의 당 대표 임기는 7개월짜리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낙연 위원

장은 현시점에서 출마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무총리, 광역지자체장, 호남 지역구 국회의원을 역임한 그로서는 또다른 정치 시험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침착하고 꼼꼼한 대응을 보여왔던 이 위원장은 당 대표로서 야당과 대립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과를 끌어내야 하는 리더십을 입증해야 한다. 또, 당내 기반이 약하다는 평가를 극복해 당을 장악해야 하는 등 대권 전 시험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범문으로 분류되는 5선 송영길 의원, 친문 핵심인 4선 홍영표 의원, 민평련 계열의 4선 우원식 의원도 전대 출마를 적극 타진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낙선했으나 대권 잠룡으로 언급되는 김부겸·김영춘 의원도 당권주자로 거론된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등판설도 당내에 돌고 있으나, 임 전 실장은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김종인 비대위 놓고 또 불거진 갈등

초선 당선인 "과거 답습" 회의론... 재선그룹은 재논의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지도부 출범으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본격 논의되면서 당내 최대 그룹인 초·재선 당선인들의 '김종인 회의론'이 감돌고 있다.

11일 통합당에 따르면 21대 국회의 당선인 84명 중 초·재선 당선인은 71.4%(초선 40명, 재선 20)를 차지한다.

주 원내대표는 8일 취임하면서 "당선인 총회를 조속히 열어 현재 4개월에 불과한 김 내정자의 임기를 어떻게 바꿀지 의견을 모으겠다"고 공언했다.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에 연찬회를 열기로 새 원내지도부가 밝히면서 '김종인 비대위' 운명에 초·재선 의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비대위'에 찬성 입장이었던 부산·경남(PK) 지역 초선 당선인은 "최근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7대 3 정도로 많이 말하기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또 다른 초선 당선인은 "굳이 김종인이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목소리가 있다"고 부연했다.

3선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에게 8월까지 한시적 비대위원장 취임할 것인지 확실한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거부 의사를 밝힌다면 주 원내대표가 강력한 당내 혁신위를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고 제안했다.

통합당 일각에서는 총선 패배 후 비대위 전환 결정 과정에서 김 내정자가 임기와 권한에 대해 단호한 모습을 보

인 것에 대해 거부감을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초선 당선인은 "통합당 패배 요인이 '수직적 조직'과 '불통'이 많이 거론되고 있다"면서 "국회 오자마자 외부인의 '통치'를 받는 상황은 20대 국회를 답습하는 상황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선 의원의 경우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크게 보이지 않지만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재선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 추진력이 떨어졌던 의견이나 오지만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당 혁신을 병행하기 힘들다"며 현 지도부 비대위 추진을 옹호했다.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무산됐던 상임전국위를 다시 한번 개최해 당헌 개정을 통한 임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김하늬 기자 honey@

美 이어 日도 '반도체 자급' 총력전

글로벌 공급망 붕괴에 인텔·TSMC 등 자국 유치 극비 프로젝트 진행

미국에 이어 일본도 반도체의 자급자족에 나섰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미국 인텔과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 등 세계 유수의 반도체 메이커의 생산·개발 거점을 자국으로 유치하는 극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11일 일본 경제 주간지 다이아몬드가 보도했다.

다이아몬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서구에서는 중국을 견제해 외국 자본에 의한 자국 기업 인수 방어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일본도 이와 맥락을 같이해 외자 유치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외연상으로는 외자 유치 프로젝트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일본 반도체 업체의 '자국 내 유턴'과 인텔·TSMC 같은 세계 유수의 반도체 업체를 일본으로 불러들인다는 게 핵심이다. 해외 대형 반도체 업체의 최첨단 공장을 일본에 건설하게 하면, 이들 업체에 부품과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도 일본으로 따라오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도 이와 유사한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다. 전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자국에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자 인텔, TSMC와 협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더해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의 현지 파운드리 생산 확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반도체 자급자족 나선 미국·일본

- 미국**
- 1 트럼프 정부, 미국 내 최첨단 반도체공장 신설 추진
- 2 미국 인텔, 대만 TSMC 등이 논의 대상
- 3 코로나 사태로 아시아 공급망에 대한 의존, 문제로 부각
- 4 인텔, 지정학적 불확실성 이유로 4월 말 미국 국방부에 "파운드리 건설 의향 있다"는 사신 보내
- 5 TSMC, 미국 상무부·국방부, 애플과 미국 공장 건설 논의
- 6 미국 정부, 삼성의 파운드리 생산 확대 지원 의향

- 일본**
- 1 경제산업성, 인텔과 TSMC 생산·개발 거점 유치하는 극비 프로젝트 진행
- 2 작년 한·일 갈등이 직접적 계기
- 3 표면적으로는 외자 유치 프로젝트
- 4 일본 반도체 소재·장비 업체의 국내 복귀가 궁극적 목표

※출처: 월스트리트저널(WSJ)·다이아몬드

출 수 없다"며 "외국 기업 유치로 최첨단 공장을 건설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단언했다.

다만 일본의 상황은 미국과는 좀 다르다. 다이아몬드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코로나 사태 이전인 지난해 한·일 갈등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과거사 문제의 영향으로 일본은 불화수소 등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수적인 3개 품목에 대해 대한국 수출을 규제했는데, 그 과정에서 일본 기업들의 삼성전자 등 한국 의존도가 높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여기에 중국 기업들도 영향력을 키우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도 커졌다.

이는 기업들의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일본 정부가 결코 방관할 수 없는 문제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는 주요국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과 한·일 갈등 모두 배경에는 반도체가 있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은 나라마다 각자도생(各自圖生)을 부채질했다. 주요국들은 코로나19 불황에서 가장 먼저 벗어나고 있는 중국을 경계하고 있다.

일본의 반도체 업체 관계자는 "중국은 국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 기업, 더 나아가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기업 인수·합병(M&A)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세계 1위와 3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일본이 그동안 아시아 의존도가 높았던 반도체 생산의 자급자족에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선진국들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자국 내 공급망 유지의 중요성을 깨닫고 제조업의 자국 내 회귀와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한 고위 관리는 다이아몬드에 "이미 일본에서 글로벌 메이저 반도체 업체는 거의 사라진 상태여서 경쟁력 있는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흐름을 멈

'방역 모범국'서 재감염 확산 獨, 완화조치 나흘 만에 속출

글로벌 경제재개 돌발변수로 韓·中도 집단감염 경계태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받는 나라에서 2차 확산 조짐이 일면서 세계 각국의 경제 재개에 큰 변수로 부상했다.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국가들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유럽 내 코로나19 방역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히는 독일에서는 최근 공공생활 제한 조치 완화 이후 도축장과 양로원을 중심으로 다시 확진자가 급증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경제 재개에 착수한 지 나흘 만에 코로나19 재생산지수가 다시 1을 넘어 1.1로 나타났다. 재생산지수는 감염자 1명이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얼마나 옮길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6일만 해도 이 지수는 0.65였다.

결국 독일 3개 주는 봉쇄 해제가 연기됐다. 메르켈 총리는 일주일간 10만 명당 50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면 다시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코로나19가 종식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자평하는 중국에서도 이날 열흘 만에 처음으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늘었다. 14명의 신규 확진자 중국 내 발생은 12명으로, 이 가운데 11명은 북한과 국경을 맞댄 지린성 수란시

에서, 1명은 후베이성 우한에서 각각 나왔다.

특히 수란시에서는 해외 여행이나 감염 노출 이력이 없는 40대 여성이 남편과 세 자매 등 가족 구성원들을 감염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이 전역의 위험등급을 낮춘 지 며칠 만에 이들 지역의 위험등급은 상황 조정됐다.

한국도 클럽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에 비상이 걸렸다. 박원순 서울시장 은 11일 라디오 방송에 나와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7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FT는 이달 초 황금연휴 기간에 발생한 클럽 집단감염 사태로 힘들게 이룬 한국의 방역 성과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예방의 역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극단적 참사를 피했으나 이로 인해 오히려 시민들이 엄격한 지침을 따르지 않다가 재확산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역 모범국들의 재확산 조짐에 경제 재개에 나선 국가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미국 다수의 주(州)와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덴마크,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코로나19 확산 둔화세가 뚜렷해지자 봉쇄 조치를 해제하고 경제 재개에 돌입했다. 그러나 방역 모범 국가들의 재확산 선례에 다시 규제를 강화해야 할 처지라고 FT는 지적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3개월 반 만에 문 연 中 디즈니랜드 중국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 11일 디즈니 캐릭터 복장을 한 여성이 미니마우스 인형을 안고 셀카를 찍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1월 25일 문을 닫은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이날 3개월 반 만에 전면 개장했다. 전 세계 테마파크 중 전면 개장은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처음이다. 중국은 코로나 억제와 경제 정상화를 과시할 목적으로 디즈니랜드 재개장을 허용했다. 개장 첫날 티켓은 판매를 시작한 지 3분 만에 매진됐다. 상하이/로이터연합뉴스

블랙록·핌코, 美연준 채권매입 대행

"최고의 전문기업에 위탁" 주장에... "이해상충" 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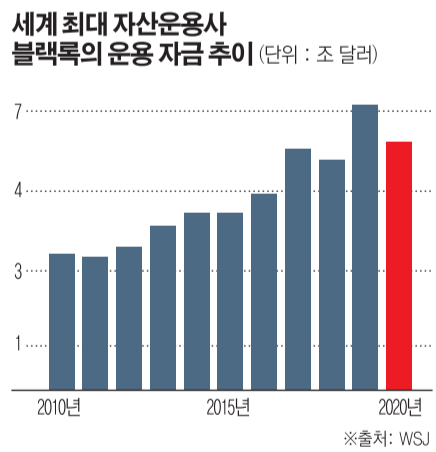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부양의 일환으로 본격적인 회사채 매입을 앞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에 도움을 손길을 요청하자 이해상충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연준은 무제한 양적완화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 가동을 앞두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세계 최대 채권펀드 운용사 핌코에 도움을 요청했다. 회사채 매입이 금지돼 있는 연준은 이 문제를 우회하기 위해 특수목적기구(SPV)를 설립했는데, 그 운용을 이들에 맡길 것이다.

연준은 '프라이머리 마켓 기업신용기구(PMCCF, 발행시장)'와 '세컨더리 마켓 기업신용기구(SMCCF, 유통시장)' 등 두 SPV를 설립했다. PMCCF는 발행시장에서 신규 발행되는 기업들의 투자등급 회사채를 매입하고, SMCCF는 유통시장에서 회사채와 회사채 ETF를 매입하게 된다. 이들 SPV를 블랙록과 핌코가 운용하는 것이다.

WSJ는 자산운용사들의 연준 '수탁자' 지위는 지난 10년간 금융 시스템에서 역할을 확대해 온 운용사들의 입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자산운용사들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연준을 도운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는 역할이 더 확대됐다. 수조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생존을 가름하는



핵심적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입찰 등 공적 프로세스가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블랙록의 자산운용 사업 부문이 거액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SPV와 이해상충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준의 공개시장 조작을 담당하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블랙록이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서 여러 종류의 회사채 및 신용 상품을 대규모로 매입해 본 전문성이 있는 데다 기업 신용시장에서의 경험, 역량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의 이타마 드렉슬러 교수는 "연준이 전문지식을 얻는 간단한 방법으로 금융시장의 챔피언을 고용한 것"이라면서도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도 타당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자금난' 사우디, 부가세 3배 인상

유가 폭락·코로나로 타격... 내달부터 생계비 지급 중단

산유국 맹주 사우디아라비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유가 폭락에 따른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

10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방송 CNBC에 따르면 사우디는 6월 1일부터 생계비 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7월 1일부터 현재 5%인 부가가치세율을 15%로 3배 인상하기로 했다.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인 사우디는 최근 국제 유가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시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추진하는 경제 개혁의 속도와 규모를 제한할 가

능성이 있다. 이에 국가 재정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생계비 수당 지급 중단과 부가가치세 인상을 결정한 것이다.

특히 이번 긴급 방안은 1분기 재정 수지에서 세출이 세입을 초과해 90억 달러의 적자를 내면서 나온 것이다. 사우디 재무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사우디는 9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재정의 약 67%를 차지하는 석유 수입은 1년 전보다 24% 감소한 340억 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세수는 전년 동기 대비 22% 줄었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FT)는 3월 사우디 중앙은행인 사우디금융청(SAMA)의 외환보유액이 4650억 리얄(약 150조 원)

을 기록, 약 1000억 리얄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1년 이후 최저치이자 20년 만의 최대 감소 폭이다.

모하메드 알자다인 사우디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이러한 조치들은 고통스럽지만 중장기적인 재정적·경제적 안정 유지와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최소화하고,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 활동 중단 및 둔화로 비석유 부문 수입이 영향을 받은 반면, 헬스케어 부문에 예기치 못한 부담이 커지고, 경기 부양책에 따라 세출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우디 정부는 일부 정부 기관에 대한 운영 및 지출을 취소 혹은 보류하기로 했다. 그리고 중장기 경제발전계획인 '비전 2030'의 많은 이니셔티브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도 삭감했다.

변효선 기자 hsbyun@

Hi 대한민국

위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높은 국민의식에
세계는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Hi! Innovation

수많은 위기를
언제나 당당히 이겨낸 대한민국
그 힘의 시작은 국민의 혁신이었습니다

Hi SK innovation

SK이노베이션은
국민에게서 혁신을 배웁니다
그 혁신의 힘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Hi Innovation 은 SK innovation의 큰 혁신(High Innovation)이 만들어 가는 행복한 혁신(Happy Innovation), 반가운 혁신(Hi Innovation)을 의미합니다

‘재난지원금 마케팅’ 자제령에도 농협銀 “계열사 카드로 유도하라”

내부 직원 대상 업무 활성화 차원
‘KPI 미반영’ 전제 공문 보냈지만
수수료 챙기기 급급한 모양새
“협조라지만 영업 가증된 느낌”

NH농협은행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카드유치 경쟁에 개입하면서 구설에 오르고 있다. 금융당국이 재난지원금을 활용한 마케팅 자제를 당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직원들에게 “계열사 카드로 유도하라”는 공문을 하달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 예산으로 진행되는 재난지원금을 놓고 수수료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영업 지점에서는 카드고객 유치 영업까지 해야 한다는 불만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난 주 내부 직원들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때 당행 카드로 유도하라는 공문을 배포했다. 농협카드로 이용 시 당행 및 고객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대외 마케팅은 하지 않았고,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추진 활성화에 노력을 부탁한다는 차원이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공문은 ‘직원 성과평가지

표(KPI)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노조 합의를 통해 배포됐다.

14조 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18일부터 카드사 연계 은행 전국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날부터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고령의 고객들은 은행 창구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은행 창구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계열사 카드로만 신청할 수 있어 이 같은 현상은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국민카드면 국민은행, 신한카드면 신한은행 등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것. 농협은행의 경우에는 NH농협카드와 농협BC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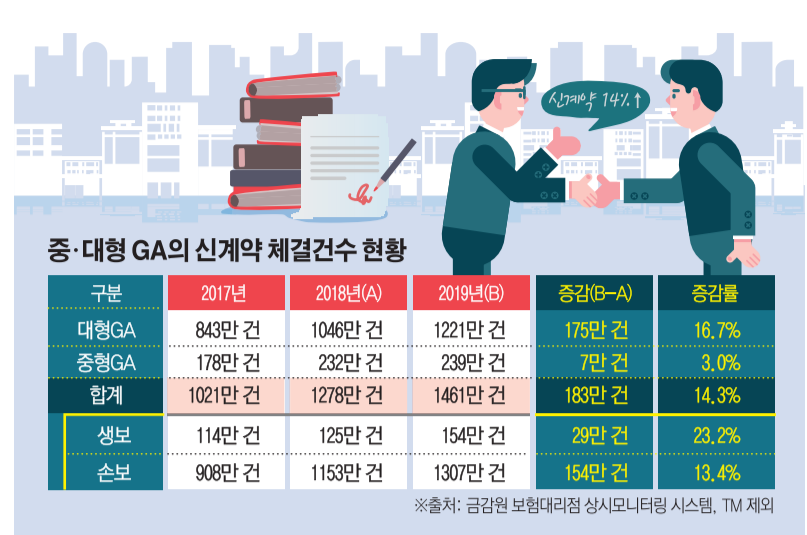
이번 농협은행의 계열 카드로 밀어주기 마케팅을 두고 논란이 되는 이유는 금융당국이 긴급재난지원금을 활용한 과도한 마케팅을 자제하라고 당부했기 때문이다. 개별 금융회사가 공적 자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서는 안 된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8일 오후 정부와 카

드사 간 업무 협약식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카드 신청 유치를 위한 지나친 마케팅을 자제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당부했다.

하지만 일부 카드는 자체 판단으로 판촉을 진행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8일부터 주말까지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신청 관련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발송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신청 대상·기간·방법 등을 설명하는 ‘사전 안내’ 형식을 갖췄지만, 목적은 최대한 많은 사람이 자사 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이용하도록 하는 데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14조 원 규모에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있는 재난지원금 이슈는 후면회원 등 카드 신규회원 추진이 가능한 좋은 기회”라며 “당국의 압박에도 가만히 있을 순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농협은행의 일부 영업지점에서는 재난지원금 카드고객 유치 영업까지 해야 한다는 불만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협카드는 특히 현재 별도 법인이 아닌 농협은행의 사 업무부서로 있어 농협은행의 계열 카드로 챙기기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 분석이다. 농협은행 지점 관계자는 “KPI에 반영하지 않는 단순 협조 공문이라 해도 재난지원금 업무에 카드유치 영업까지 가증되는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서지연 기자 sjy@



덩치 더 커진 중·대형 GA 작년 신계약 14% 늘었다

전년 대비 183만건 증가
수수료 1.2% 더 벌어

지난해 중·대형 GA의 신계약 건수가 전년 대비 1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 수입은 20% 넘게 늘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형 GA의 신계약 건수는 1461만 건으로 전년(1278만 건) 대비 14.3% (183만 건) 증가했다.

이 중 대형 GA를 통한 계약이 1221만 건(중형 239만 건), 상품은 손보 상품이 1307만 건(생보 154만 건)으로 신계약의 대부분(83.6%, 89.5%)을 차지했다.

중·대형 GA의 수수료 수입은 7조 4302억 원으로 전년(6조 1537억 원) 대비 20.8% (1조 2788억 원) 늘었다. 수수료 환수금은 4538억 원으로 전년(4359억 원) 대비 증가했고(179억 원, 4.1% ↑), 환수비율은 6.1%로 전년(7.1%) 대비 1.0%p 개선됐다.

불완전판매 비율은 0.08%로 전년(0.13%) 대비 0.05%p 줄어들었다.

중형 및 대형대리점 모두 전년(0.15%, 0.12%) 대비 모두 0.04%p 개선됐다. 13회차 유지율과 25회차 유지율은 80.42% 및 61.53%로 전년 대비 각각 0.76%p, 2.01%p 하락했다.

같은 기간 중·대형 GA는 190개로 전년 말 대비 12개 증가했고, 소속설계사는 18만395명으로 전년 말 대비 8649명 늘었다.

대형은 소속설계사 수 500명 이상, 중형은 소속설계사 수 1백~499명이다. 소형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4만 3375명으로 전년 말 대비 1117명 증가했다.

금감원은 중·대형GA의 25회차 유지율이 채널 전체 평균 대비 2.29%p 저조해 불공정 영업 행위가 완화됐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평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GA의 수수료 수입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작성계약 및 특별이익 제공 등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해 나가면서, 이상 징후가 포착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sjy@

퇴직자, 月 252만원 소비·110만원 저축

하나금융 ‘생애금융보고서’

퇴직자들은 생활비로 월 평균 252만 원을 쓰고 절반 이상은 노후를 위해 110만 원을 저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금융그룹 100년 행복연구센터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애금융보고서 대한민국 퇴직자들이 사는 법을 발간했다. 보

고서는 서울·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남녀 퇴직자들의 삶을 조사했다. 월 평균 지출과 저축액은 경제활동과 함께 퇴직 후 정서적 문제도 함께 분석했다.

조사 결과 퇴직자들은 생활비로 평균 월 252만 원 지출했다. 3명중 2명은 생활비를 28.7% 줄였다. 이들 퇴직자들이 원하는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 퇴직자들은 괜찮은 생

활수준을 위해 월 400만 원 이상 필요하다고 답했다. 생활비 200만~300만 원은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하며 먹고 사는 정도’로 충분치 않다는 게 대다수 의견이었다.

퇴직자의 54.2%는 노후 대비를 위해 평균 월 110만 원을 저축했다. 또 보유주택 활용, 여성 동안 생활비를 주는 상품에 관심이 있다.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은 ‘앞으로 늘어날 의료비(71.7%)’와 ‘노후자금 부족(62.0%)’이다. 여기에 ‘자녀의 결혼비용(56.2%)’도 포함됐다. 김범근 기자 nova@

DOUZONE
더존비즈온

www.wehago.com

대한민국 기업을 위하고! 원격근무 성공을 위하고! 재택근무 통합패키지 무상제공

- 본 서비스는 ICT 전문기업 더존비즈온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기간: 2020. 06. 30까지)
- 기업 비즈니스 플랫폼 WEHAGO의 소통과 협업에 특화된 12가지 서비스만 선별하여 업무 단절이나 보안 문제 없이 효율적인 원격근무 통합패키지를 무상으로 제공해드립니다.
- WEHAGO 홈페이지(www.wehago.com)에서 신청하시고, 회원가입 후에는 바로 업무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p>빈틈없는 재택근무를 위한 12가지 무상제공 서비스</p> <p>원격접속, 화상회의는 물론 심지어 팩스, 문자서비스(세종텔레콤 협력)까지 무료로! 한 두 가지로 해결할 수 없는 기업 업무환경을 12가지 서비스가 그대로 구현해줍니다.</p>	<p>내 PC 원격접속</p> <p>언제 어디서나 사무실의 서버 또는 PC에 접속하여 원격 화면을 보여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고, 원격 PC의 자료를 관리합니다.</p>	<p>채팅&메신저(WE톡)</p> <p>조직과 업무 단위로 그룹 대화방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정보와 파일을 공유하고, 쪽지, 화상회의, 투표, 일정 공유, 웹오피스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기업 전용 메신저입니다.</p>	<p>화상회의</p> <p>국내와 해외 어떤 지역이라도 PC와 모바일 기기만 있으면 화상회의, 투표, 일정 공유, 웹오피스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기업 전용 메신저입니다.</p>	<p>문자서비스</p> <p>거래처, 연락처와 연계되어 고객 및 거래처 그룹을 관리하고 대량 일괄발송 등 문자 기반의 다양한 마케팅 도구를 제공하는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입니다.</p>	
	<p>팩스</p> <p>팩스기가 없어도 인터넷 팩스를 통해 수신되는 팩스 내용을 읽고 빠르게 확인하고, 발송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p>	<p>메일(1G)</p> <p>개인 메일은 물론, 회사 메일까지 통합 관리하고, 간편하게 회사의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는 기업 전용 메일 서비스입니다.</p>	<p>전자결재</p> <p>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결재 양식을 제공하고, 모바일과 PC를 통해 비대면 요청이 가능하며, 재택근무 환경에서도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p>	<p>웹오피스</p> <p>한국, 역성, 파워포인트, 워드 등 다양한 포맷을 지원하는 웹 기반 오피스입니다. 이제 어디서든 쓰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p>	<p>원격접속</p> <p>원격접속, 화상회의는 물론 심지어 팩스, 문자서비스(세종텔레콤 협력)까지 무료로! 한 두 가지로 해결할 수 없는 기업 업무환경을 12가지 서비스가 그대로 구현해줍니다.</p>
	<p>WE드라이브(10G)</p> <p>회사 내 파일과 문서를 동료들과 쉽게 공유하고 검색하며, 웹 오피스를 통해 편집하고 열람할 수 있는 기업용 파일저장소입니다.</p>	<p>일정관리</p> <p>일정 초대와 공유 캘린더를 통해 동료들과 업무 일정을 공유하고, 일정과 관련된 위치, 자료, 태그, 참석 여부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협업합니다.</p>	<p>할일관리</p> <p>해야 할 업무, 진행 중인 업무, 종료된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리자는 지시한 업무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p>	<p>기본정보관리</p> <p>조직도를 통한 직원검색, 수명주기 관리, 연락처의 통합관리 및 자동 업데이트/공유, 다양한 타인의 회사계좌번호 등 기본정보 관리 기능이 제공됩니다.</p>	<p>원격접속</p> <p>원격접속, 화상회의는 물론 심지어 팩스, 문자서비스(세종텔레콤 협력)까지 무료로! 한 두 가지로 해결할 수 없는 기업 업무환경을 12가지 서비스가 그대로 구현해줍니다.</p>

※한국어, 영어, 일본어 3가지 언어를 지원합니다.



GS칼텍스 1조 적자...정유4사 1분기 4조4000억 손실



국제유가 급락에 코로나 덮쳐 재고손실·정제마진 겹악재 환차손까지... '어닝쇼크'

GS칼텍스가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재고 관련 손실에 따라 올해 1분기에만 1조 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유 4사의 손실은 예상치인 4조 원을 훌쩍 뛰어넘은 4조4000억 원에 달하게 됐다.

GS칼텍스는 1분기에 매출액 7조715억 원, 영업손실 1조318억 원, 당기순손실 1조153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1.1% 감소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모두 적자로 돌아섰다.

전 분기 대비로 보면 매출액은 18.7% 줄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945억 원, 1114억 원 감소해 적자 전환했다.

사업부문별로는 정유부문의 실적 악화가 전체 실적에 직격탄을 날렸다.

정유부문은 매출액 5조5093억 원, 영업손실 1조1193억 원을 기록했다. 전 분기 대비 매출액은 21.2%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했다.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재고 관련 손실과 제품 스프레드 하락 등에 따라 이 같은 손실을 기록한 것이다.

석유화학부문은 매출액 1조2444억 원, 영업이익 202억 원을 기록했다. 납사 및 제품 가격 하락 등에 따른 재고 관련 손실로 전 분기보다 매출액 11.2%, 영업이익은 31.7% 각각 줄어들었다. 운할유부문은 선방했다. 매출액 3178억 원, 영업

이익 672억 원을 기록하며 전 분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6.2%, 77.2% 급증했다.

이에 따라 국내 정유 4사의 1분기 영업손실은 4조3775억 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1분기 영업손실은 1조7752억 원이라고 발표했고, 에스오일(S-OIL)과 현대오일뱅크는 각각 1조73억 원, 5632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악화한 상황에 유가 급락으로 인한 대규모 재고 관련 손실 발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내외 석유제품 수요 부진으로 인한 정제마진 약세라는 폭탄을 맞았다.

통상 정유사가 원유를 산 다음 수입해 오기까지 2-3개월 걸리는데 그 사이에 원유 가격이 폭락해 비싼 값에 산 원료를 가

지고 만든 제품을 싼 가격에 팔 수밖에 없어 재고 관련 손실이 일어난 상황이다.

이에 더해 코로나19로 석유 제품의 수요도 떨어져 제 가격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과 환율 강세에 따른 환차손 영향도 정유사의 실적을 끌어내리는 데 일조했다.

한편, GS칼텍스는 이날 유가 하락과 코로나19 등에 따른 수요 하락에도 신용등급에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사 측은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속적 차입금 감축 노력 및 안정적인 투자 규모를 유지하는 등의 재무 책정을 통해 신용평가사들로부터 타사 대비 재무 관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GS칼텍스는 S&P로부터 BBB(S), 무디스로부터는 Baa1(S) 평가를 받았다.

김유진 기자 eugene@

대한항공, 내일 이사회서 1조 유상증자 추진

한진칼, 14일 참여 여부 의결
지분을 따라 3000억 조달해야
현금 부족해 유증·대출 예상
'3자 연합' 경영권 분쟁 변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대한항공이 13일 이사회를 열고 최대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3일 이사회에서 올해 1분기 실적과 유상증자 추진 여부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한항공은 최대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 추진을 염두에 두고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다.

유상증자는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 반공모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최근에는 자금 확보 일환으로 기내식, 항공정비(MRO) 사업 부문의 매각 가능성 등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번 이사회에서 사업부 매각이 논의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의 대주인 한진칼 역시 14일 이사회를 열고 대한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안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칼은 대한항공 지분을 보통주

기준 29.96%(우선주 포함 29.62%) 보유하고 있다. 만약 대한항공이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나선다면 지분율에 따라 3000억 원가량을 조달해야 한다.

한진칼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연결 기준 한진칼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412억 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한진칼 역시 유상증자나 담보 대출 등을 통해 추가 자금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진칼 자금 확보 과정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 등 '3자 연합'과의 경영권 분쟁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진칼이 대한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가능성은 크나 아직 어떤 식으로 자금을 조달할지는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무풍에어컨 3멀티' 새 라인업 390만원부터
삼성전자는 실외기 1대로 최대 3대의 에어컨 설치할 수 있는 '무풍에어컨 멀티' 라인업에 무풍에어컨 갤러리(왼쪽 모델)와 벽걸이 와이드를 추가했다고 11일 밝혔다. '3멀티'는 국내 최대인 100㎡(약 30평)의 냉방 면적을 제공한다. 벽걸이형 2대로 구성된 '방방멀티'는 최대 48.8㎡(약 14평)까지 냉방 가능하다. 무풍에어컨 3멀티의 출고가는 390만~510만 원, 방방멀티의 출고가는 200만 원이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기아차, 신차 전액 할부·25% 추가 대출 혜택

납입금 유예제도 한 달 연장

기아자동차가 신차 구매 부담을 덜기 위한 '초기비용 전액 할부 구매 프로그램'을 11일 출시했다.

'초기비용 전액 할부 구매 프로그램'은 △신차 가격 전액 할부 △신차 가격 25% 상당의 금액 추가 대출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5월 중 기아차를 출고하는 개인 및 개

인사업자 고객이 이번 구매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36·48·60개월 중 원하는 할부 기간을 선택해 할부 금액 및 추가 대출 금액을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

또한, 신차 가격 25% 상당의 대출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혜택도 제공된다.

기아차는 지난달 선보인 '희망플랜 365 프리' 구매 프로그램도 한 달 연장한다.

대상 차종 구입 시 총 48개월 할부 기간 중 초기 12개월 동안 월 납입금 없이 차량을 이용하고, 나머지 36개월 동안 3.9% 금리로 원리금을 상환하면 된다.

대상은 모닝, 레이, K3, K7, 스티어링, 쏘울, 스토닉, 스포티지, 카니발, 봉고, 개인택시(K5·K7) 차량 출고 고객(개인·개인사업자)이며, 이달 니로 하이브리드차(HEV)가 추가됐다.

유창욱 기자 woogi@

한화솔루션, 실적 발표 '홈피 중계'

한화그룹 '주주 친화 경영'

7개 상장사 주총 전자투표 도입
사외이사 38명 중 그룹 출신 0명
경영기획실 해체 지배구조 개선

한화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경영 투명성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 등 '주주친화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12일 '1분기 경영 실적 발표회'부터 '오디오 웹캐스팅'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웹캐스팅을 통한 실적 발표회 내용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게 된다.

한화솔루션 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은 누구나 한화솔루션 홈페이지에서 실적 발표회 내용을 실시간으로 들 수 있게 된다.

(주)한화, 한화솔루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투자증권 등 한화그룹의 7개 상장회사는 모두 주주총회에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했다.

2009년 한화투자증권을 시작으로 차례대로 도입한 전자투표제도를 통해 주주들의 원활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배구조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2018년 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영기획실을 해체했다. 한화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그룹차원의 컴플라이언스 정책을 수립하고, 각 계열사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관련 업무 자문을 위해 설립했다. 이후 한화 주요 계열사들은 그룹 출신 사외이사를 차례로 배제하고, 외부 전문가들을 사외이사로 영입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현재 10개 계열사에 걸쳐 현재 총 38명의 사외이사가 있다. 이들 가운데 한화 출신 사외이사는 단 한 명도 없으며, 모두 외부 영입 인사다.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들이 지속적으로 합류하고 있다. 한화에너지는 지난달 말 한화그룹 비상장사 중 최초로(금융사 제외)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이황 고려대 로스쿨 교수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신규 선임한 사외이사 2명과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도 신설했다.

한화솔루션은 3월 주주총회에서 어떤다부시, 시마 사토시 등 에너지와 미래 신산업 분야 해외 전문가 2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주)한화도 3월 주주총회에서 이석재 서울대 철학과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김병리 기자 kimstar1215@

롯데정밀화학, 카니발 차주에 요소수 증정

31일까지 1000명 대상

롯데정밀화학은 올바른 순정 요소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기아 카니발 디젤 차주 1000명에게 유룩스(EUROX·사진) 프리미엄 3.5 l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유룩스는 롯데정밀화학이 만드는 요소수 브랜드다. 요소수는 디젤차의 선택적 촉매 환원(SCR) 시스템에 쓰이는 촉매제다. 배기가스의 미세먼지 원인 물질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NOx)을 제거해 대기환경을 개선한다.



기아카니발 디젤 차주는 연식에 상관없이 누구나 유룩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응모 마감은 31일이다. 본인 소유의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추첨을 통해 1인당

유룩스 프리미엄 3.5 l 2개를 증정한다. 당첨 여부는 내달 15일 이벤트 페이지에 게시한다.

카니발 차주가 아닌 고객도 참여할 수 있는 공유 이벤트도 진행한다. 유튜브에 올라간 순정 요소수 구별 팁 영상을 보고 이벤트 내용을 SNS에 공유한 후, 해당 주소를 이벤트 페이지에 남긴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

롯데정밀화학은 최근 승용차 전용 유룩스 프리미엄 3.5 l 신제품을 출시했다. 디자인권을 획득한 스포우트와 일체형의 파워치 용기로 고안돼 간편하게 주입할 수 있고, 상비용으로 갖추기에도 편리하다.

김병리 기자 kimstar1215@

SK, 바이오벤처 '허밍버드' 투자...항체 의약 시장 진출

中 '하버바이오' 투자 7개월 만에 또 바이오 강화 세균·바이러스 구조 예측해 신약 개발 오류 줄여

SK주가 항체 의약품 개발의 혁신기술을 보유한 바이오 벤처기업인 '허밍버드 바이오사이언스(Hummingbird Bioscience)'에 투자를 단행했다.

중국의 바이오 벤처에 투자한 지 7개월 만에 또다시 바이오 기업에 자금을 투입하며 바이오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SK주는 11일 싱가포르 바이오 벤처기업인 허밍버드에 투자, 항체 의약품 시장 진출을 위한 혁신기술 선점에 나섰다. 이번 투자는 약 80억 원 규모로 진행됐으며 SK주가 주요 투자자로 참여했다.

항체 의약품이란 질환을 유발하는 단백질에 선택적으로 결합해 항원의 작용을 방해하는 체내 면역 단백질로, 대표적 바이오 의약품으로 꼽힌다. 부작용이 적고 약효가 뛰어나 대형 제약사들이 앞다퉈 개발 중인 고부가 약품이다.

허밍버드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Sanofi) 출신 전문가들이 혁신적 항체

신약 개발을 위해 2015년 설립한 바이오 벤처로, 본사는 싱가포르에 있으며 미국 휴스턴에 임상개발센터를 두고 있다.

허밍버드는 항체 신약 개발의 핵심 요소인 최적의 항체 발굴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기존 항체 개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회사는 단백질 구조를 예측해 항체가 결합하기 가장 좋은 부위를 선별하고, 선정된 부위에만 결합하는 자체적인 항체 발굴 기술(RAD:Rational Antibody Discovery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약 개발 과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최적의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췄다.

허밍버드의 성장 잠재력은 업계에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2월 미국 텍사스 암 예방 연구소(CPRIT)가 1300만 달러(약 158억 원)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했고, 같은 해 8월 영국 암 연구소(Cancer

Research UK)도 허밍버드의 항암 신약 후보 물질 임상 1상 비용을 지원했다. 연구 기관에서 임상 단계의 신약 후보 물질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 허밍버드는 지난해 9월에는 다국적 제약사 암젠(Amgen)과 최대 1억 달러(약 1219억 원) 규모의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SK주는 허밍버드 투자 이전부터 바이오 벤처 투자를 진행,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 투자한 중국의 바이오 벤처 '하버 바이오메드(Harbour BioMed)'는 사노피, 존슨앤존슨 등 글로벌 제약사와 허버드 의대 출신 전문가들이 2016년 설립한 바이오 벤처다. 항암과 면역질환 치료용 항체 의약품을 개발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SK주는 약 900억 원 규모로 진행된 허버바이오메드 투자에 싱가포르투자청(GIC), 레전드캐피탈 등과 공동 참여했다.

SK주는 이러한 투자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 의약품 시장 진입과 함께 신약개발 자회사인 SK바이오팜과의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김유진 기자 eugene@



현대기아차가 협력사와 비대면 IT시스템을 구축했다. 전국 6곳의 IT개발 센터 1000여 명의 협력사 직원들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 현대차와 개발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개발부터 판매까지 '온라인' 진행 현대차, 협력사와 '비대면' 車 개발

코로나 시대 車 산업 트렌드 글로벌 부품 공급망 다변화 신차 개발, 방역·살균 초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글로벌 확산이 자동차 산업의 트렌드 변화를 몰고 왔다. 제품 판매에 이어 협력사 업무에도 비대면 시스템이 등장했고 신차 기술개발도 방역과 살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1일 현대·기아차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IT 협력사와의 업무효율을 확대하기 위해 '비대면 IT 개발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현대오도메버와 공동으로 구축한 이 플랫폼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와 프로그램 개발 툴(도구)을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협력사와 비대면 업무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기아차는 현재 전국 6곳에 IT 개발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곳에만 100여 개 협력사 직원 1000여 명이 상주하며 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새 플랫폼을 도입하면 이들이 자택 또는 자사에서 온라인에 접속해 현대·기아차 개발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비대면 판매와 마케팅도 증가 추세다. 이미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온라인 신차 발표회가 속속 진행 중이다. 나아가 비대면 판매도 증가 추세다. 타이어 업계에서도 '픽업 & 장착 배송'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부품 공급망 다변화가 눈에 띈다. 2월 중국발 '외이

어링 허네스' 수급 차질 탓에 곤욕을 치렀던 자동차 업계는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을 검토 중이다. 특정 국가 또는 기업에 공급망을 의존하는 것이 아닌, 공급처 다변화를 통해 '생산 차질 우려'를 덜어내겠다는 전략이다.

신차 개발에서도 방역과 살균 등에 초점을 맞추는 추세다. 미세먼지 등을 대처하기 위한 공기정정기에 이어 최근에는 살균 소독 기술도 나왔다. 운전자가 내리면 자외선(UV) 램프가 자동으로 켜져 자동차 내부를 살균하는 '위생 기술' 가운데 하나다.

현대차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차량 내부를 UV 램프로 살균하고 탈부착 방식의 시트 커버를 개발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UV 살균은 의학적으로 세균 제거 효과가 검증된 방식이다. 현대차그룹은 차내 천장에 UV 램프를 설치해 △시트 △바닥 매트 △대시보드 △운전대 △기어봉 등 신체 접촉이 많은 부분을 살균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런 위생 기술의 개발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위기를 맞은 카셰어링 서비스 확대에 결정적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은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전시회인 '2018 CES' 참가 이후 차량 공유 시스템과 관련해 "위생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카셰어링 성패가) 달려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들이 블루오션인 카셰어링 시장을 두고 경쟁하는 사이, 정 부회장이 내세운 신종론은 큰 주목을 받았다. 김준형 기자 junior@

바이탈뷰티
명작수췌
홍삼 제품

이제 본연의 생기와 활력을 되찾고 싶은
홍삼의 힘

건강기능식품
600g | (20개 x 30연봉)

건강한 일상이 소중해진 요즘,
홍삼의 힘을 선물하세요

바이탈뷰티 명작수

그 어느 때보다도 면역력 관리가 중요해진 요즘입니다.
인삼의 뿌리와 열매*를 모두 담은 홍삼 앰플 명작수-
오늘부터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한 매일을 지켜주세요.
*인삼 열매는 부원료입니다

제품상담
구매문의

080-023-5454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 www.amorepacificmall.com

바이탈뷰티

한화에어로, 2017년 임단협 3년 만에 마무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노사가 3년 만에 2017년·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마무리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8일 창원사업장에서 신현우 대표이사와 윤종균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단협 조인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위중한 대내외적 경제 상황 속에서 노사 상생과 회사의 지속경쟁을 위해 어려운 결단을 해주신 지회와 조합원분들께 감사하다"며 "오늘을 계기로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안정된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항공엔진 글로벌 넘버원(No.

1) 파트너' 비전 달성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노사갈등은 2015년 삼성에서 한화로의 지분 매각 과정 중 발생했다. 그동안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며 갈등을 이어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코로나19의 대내외적 경제 위기 속에서 더 이상의 갈등은 노사 모두에 득이 될 게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노사가 합심해 위기를 극복하지는 상생협력의 정신이 결실을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버리 기자 kimstar1215@



“우리 딸은 이거 해줬어~”

뿌듯함을 선물하세요

W효도적금

자녀가 부모님 또는 본인 명의로 가입하는 효(孝) 테마 상품



기본혜택

- 최고 금리 연 1.6%(2020.05.01 기준/세전) • 오래오래 효도하세요~ 10년간 만기자동갱신
- 효도 자금 필요시 중도 인출 가능(1년 2회)



부가혜택

- 잊지 말고 전화하세요~ 부모님 기념일 알람 서비스 • 상조 서비스 할인 및 무료 컨설팅
- 치과, 안과 등 의료비 할인 정보 서비스 • 효도 여행에 필요한 환율 우대 서비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0-2012호(2020.05.04) 게시기한: 2021.04.29 · 이 예금(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개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 국민없이 ☎1332, IBK기업은행 : ☎080-800-0119) · IBK기업은행은 금융·항목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개성공단 중단은 위한... 헌재, 신속히 심리 진행해야”

개성공단 비대위, 공단 폐쇄 관련 헌법소원 심판 촉구 시위
“4년 지났지만 공개변론조차 안해... 탄원서 모아 제출할 것”

개성공단 기업들이 1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이 4년째 지연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개성공단기업 비대위 관계자 20여 명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5월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한 심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이 가동 중단된 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그해 5월 9일 개성공단 중단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청구(2016헌마364)를 했다.

정기집 개성공단기업 비대위원장은 “국정농단을 일삼던 박근혜 정부의 법적 절차를 무시한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지 만 4년이 됐다”며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개성

공단 입주기업들은 하루 하루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무려 4년 동안이나 우리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공개변론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통일부는 2017년 12월 정책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 지시로 집행됐다는 사실을 ‘정책혁신 의견서’에 담았다. 이에 비대위는 “개성공단 중단이 법치가 아닌 인치에 의해 폐쇄됐는 점이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아직껏 재판 진행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재판 진행을 미루는 이유가 무엇이든지 국가의 부당한 조치로 재산권과 생존권을 박탈당한 개성공단 기업인과 종사자들의 억울한 호소를 외면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며 “헌재가 국정농단을 일삼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심판해 정의를 세웠듯이 박근혜 정부의 위법적인 공권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력 행사로 이뤄진 개성공단 폐쇄를 법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송기호 변호사(법무법인 수륵아시아)도 헌재가 심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변호사는 “만 4년을 기다리게 하는 것

은 해도 해도 너무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정의로운 심판이 나온다고 해도 지연된 정의라도 그것이 과연 국가의 정의겠느냐”며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 직업의 자유를 박근혜 정부에서 침해한 일에 관해 바로잡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나

고 방문했다.

송 변호사는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해 헌재가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박근혜 정부 때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하는데 너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가 판결을 내리지 못하면서 행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장에서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개성공단’에 관한 언급이 빠진 데 관한 비판도 제기됐다.

정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처럼 ‘한국이 미국 승인 없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뒤 비대위 관계자들은 헌법재판소장 면담을 하겠다고 민원실을 방문했다. 헌법재판소 측은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이미 했다면, 면담은 불가능하며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비대위는 개성공단 비대위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탄원서를 받아 향후 제출할 예정이다. 이자민 기자 aaaa3469@

“납품단가 후려치기 못하게 막겠다”

중기중앙회 ‘납품단가 조정위’ 출범... 위원장에 서병문 주물협동조합 이사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납품거래를 돕는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중기중앙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출범식을 열어 ‘현장 맞춤형 납품대금 조정 프로세스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위원회는 정부에서 중기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협의권 부여를 추진함에 따라 관련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업종별 거래 현황 모니터링 △원가가이드라인 분석 △협동조합의 납품대금 조정사례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협의권 부여를 명시화하고자 법률 개정에도 나선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납품

단가 조정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임금지급 여력 확대를 위해 납품단가 공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중앙회는 지난해 표준원가센터를 설치해 업종별 표준단가를 산출 중이며, 대기업과의 납품단가 조정 과정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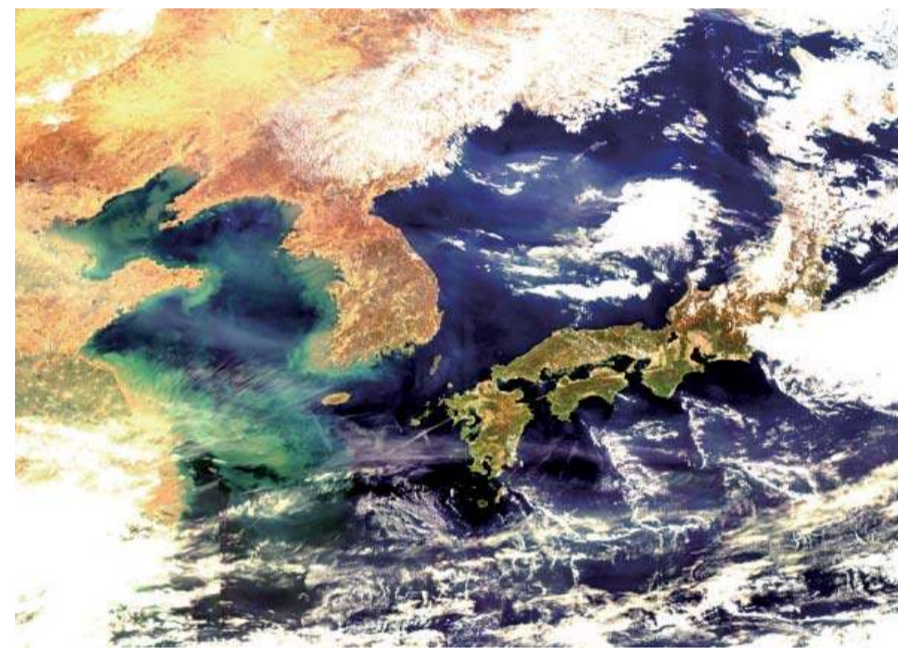
이날 출범식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축사를 통해 “작년에 납품대금 조정 협의 제도를 시행했지만 대·중소기업 간 협상력 격차에 대한 보완장치가 미흡한 게 아쉬웠다”며 “중앙회가 중소기업에 대신해 조정 협의에 나

선다면 보다 현실적인 협의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조정위원회 출범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 큰 효과를 위해서는 상생협력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보는 만큼, 상생법을 21대 국회에서 개정할 수 있도록 당과 중기부, 중기중앙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계약관계에서 철저히 을의 입장이 중소기업 스스로가 대기업에 납품대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적정 납품대금 지급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우리 손으로 만든 해양-환경 관측 위성 ‘천리안 2B호’가 찍어 보낸 해양관측 영상이 11일 처음 공개됐다. 사진은 3월 23일 13시 관측 영상. 사진제공 과기정통부

제로페이 가맹점 50만 개 돌파

최근 두달간 가맹신청 14만건

제로페이 가맹점이 50만 개를 돌파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해 1월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한 제로페이가 2년 차를 맞아 가맹점과 결제가 대폭 증가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제로페이는 8일 가맹점 50만 개를 돌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언택트(untact) 소비에 관한 관심 증대와 제

로페이를 활용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이 영향을 미쳤다.

올해 가맹점 신청은 1월 8500건, 2월에 8900건이었으나, 3월 8만5000건에 이어 4월 5만9000건이 접수되는 등 최근 2개월 동안에만 가맹점이 14만4000건(주당 1만8000건)으로 늘어났다. 제로페이 결제액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767억 원이었지만, 올해 4월 한 달 동안에만 1021억 원이 결제돼 4월의 일평균 결제액은 34억1000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4월보다 40배 넘게 늘어난 규모다. 이자민 기자 aaaa3469@

“직접 눕지 않아도 느껴지는 편안함”

시몬스 침대 ‘완판 행진’

200만~300만 원 프리미엄 제품
흡소핑·온라인몰서 매진 이어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언택트(비대면)’ 소비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침대·매트리스 업계도 온라인·이커머스 소비가 늘어나는 가운데, 시몬스 침대의 성장세가 돋보인다.

11일 시몬스 침대에 따르면 3월 현대홈쇼핑을 통해 판매한 대표 매트리스 컬렉션 ‘뉴티레스트’의 인기모델 ‘머스크(Musk·사진)’와 프레임 ‘칼릭스(Calix) 2’ 세트가 빠른 시간에 매진됐다.

시몬스 침대는 홈쇼핑 방송을 2018년부터 연간 단 두 번, 한정 수량으로 진행하고 있다. 평균 판매가가 200만~300만 원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매진 행렬이 이어지는 점이 특징이다. 통상 미디어 커머스 채널에서 중저가 제품의 인기가 높은 것과 대

조적이다. 2018년 6월 방송에서는 판매가 300만 원의 프리미엄 제품이 분당 9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며,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매진됐다. 지난해 10월엔 매출 25억 원을 올리기도 했다.

회사는 브랜드 신뢰도를 바탕으로 미디어 커머스 분야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침대·매트리스는 직접 누워 보고 사는 제품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매장 방문이 어려워졌다. 따라서 고객들이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시몬스 침대 제품을 온라인 및 미디어 커머스 채널을 통해 선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뛰어난 품질력과 안전성이 제품의 신뢰도를 더욱 높였다. 시몬스 침대는 경기 이전에 위치한 시몬스 팩토리움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자체 생산 시스템과 세계 최고 설비를 자랑하는 수면연구 연구개발(R&D)센터를 통해 안전한 매트리스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매트리스’를 국내 최초로 출시하고 시몬 매트리스 41종에 대한 ‘라돈 안전제품 인증’을 받는 등 안전성도 확보했다.

회사는 비대면 판매 채널을 통한 인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몬스 관계자는 “전국 직영 플래그십 스토어 ‘시몬스 갤러리’와 본사가 위탁 운영하는 ‘시몬스 맨션’ 등 대리점·백화점 오프라인 매장 외에도 온라인몰, 흡소핑 등으로 판매 채널을 다각화하고 있다”며 “직접 눕지 않아도 느껴지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등 브랜드 신뢰도를 바탕으로 고객과의 접점을 점차 넓혀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네이버 유료 회원서비스 ‘플러스 멤버십’ 내달 출시

네이버가 유료 회원제 서비스인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을 내달 정식 출시한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은 일정 비용을 낸 네이버 이용자에게 네이버페이 포인트 적립 혜택과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이용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우선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에 가입하면 네이버쇼핑과 예약, 웹툰 서비스 등에서 네이버페이로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의 최대 5%를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적립받을 수 있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회원은 월간 결제금액 20만

원까지 ‘기본 구매 적립’ 외에 4% 추가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의 결제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1% 적립 혜택을 받는다. 멤버십 가입 가격은 사내 베타테스트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멤버십 적립 혜택은 네이버페이 이용 시 제공되는 다양한 적립 혜택들과 별도로 제공되기 때문에, 네이버페이 애용자라면 다양한 혜택들을 중복으로 누릴 수 있는 실용적인 멤버십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준 기자 tiatio@

“K-뷰티와의 시너지 톡톡” 화장품 만드는 패션명가

한섬 '클린젠' 지분 인수하며
프리미엄 스킨케어 론칭 계획
LF 지난해 10월 '아떼' 론칭
韓화장품 전 세계가 주목
글로벌 진출 '찰떡궁합' 기대



‘화장’하는 패션기업이 늘고 있다. 신세계인터내셔널, LF에 이어 한섬도 화장품 사업에 도전장을 냈다. 패션기업들이 잇따라 화장품 사업에 진출하는 배경은 트렌드에 민감한 사업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진 데다 기존 패션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한섬은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코스메슈티컬 전문기업 ‘클린젠 코스메슈티칼(이하 클린젠)’의 지분 51%를 인수해 내년 초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를 론칭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패션전문기업인 한섬은 클린젠 인수로 기존 화장품 시장에서 비주류이지만 마니아층이 두터운 ‘코슈메슈티컬(의약성분 화장품)’ 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클린젠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클린피부과’와 신약개발전문기업 ‘프로젠’이 공동 설립한 회사로 미국 스탠리 코헨 박사가 발견해 노벨의학상을 받은 ‘EGF’ 성분을 담은 화장품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섬이 ‘대중성’ 대신 ‘프리미엄’을 전략으로 내세운 이유로 기존 뷰티 시장에 진출한 패션기업에 비해 후발주자인 만큼 차별화된 제품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다. 실제로 한섬은 타임, 마인 등 프리미엄 패션 브랜드의 이미지를 새 화장품 브랜드에 투영한다는 계획이다. LF도 지난해 10월 첫 자체 여성 화장품 브랜드 ‘아떼’(ATHE)를 론칭하면서 화

장품 시장에 뛰어들었다. 아떼 역시 기존 화장품 브랜드와의 차별화를 강조한 브랜드다. 아떼는 LF가 국내 판권을 보유한 프랑스 브랜드 ‘바네사브루노 아떼’의 세컨드 브랜드로 ‘비건 화장품’을 지향한다. 프랑스 비건 인증 기관 EVE(Expertise Vegan Europe)의 인증도 획득했다. LF는 2018년 헤지스의 남성 화장품 라인인 ‘헤지스 맨 롤429(사이구)’를 선보이기도 했다. 한섬의 클린젠 인수는 신세계인터내셔널의 비디비치 인수와 닮은꼴이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은 2012년 ‘비디비치’를 인수하며 기존 패션 사업 중심의 포트폴리오에 변화를 꾀했다. 비디비치는 신세계인터내셔널의 화장품 사업을 주도하는 브랜드로 성장했고 후속 브랜드 론칭과 화장품 사업 수익성 개선을 이끈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은 지난해 매출 1조 4250억 원, 영업이익 845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전체 영업이익 중 80%가 화장품 부문에서 발생했고 화장품 사업 매출에서 비디비치가 차지한 비중은 63%에 이른다. 비디비치는 지난해 2000억 브랜드로 성장했고 잇달아 선보인 연작, 아워글래스 등도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패션기업들이 화장품 사업에 진출하는 이유로 ‘글로벌 진출 전략’을 꼽는다. K-뷰티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중국과 동남아시아 중심이었던 주요 수출 국가에 중앙아시아, 유럽, 북미까지 속속 포함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의 화장품 수출액은 2014년 18억 달러에서 2018년 63억달러로 연평균 34.9%의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시장 조사기관 유폴모니터는 2018년 기준 한국의 화장품·생활용품 시장 규모가 14조8000억 원으로 세계 9위 규모라고 밝혔다. K-뷰티의 글로벌 주목도는 이미 정평이 나 있다. 로레알그룹이 패션뷰티 기업 ‘스타일난다’를 인수한 것도 이 회사의 뷰티 브랜드 ‘3CE’의 영향이 컸다. 스타일난다 인수 당시 안 르부르동 로레알코리아 사장은 “인수를 통해 로레알코리아가 화장품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3CE가 인수의 핵심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화장하는 패션 기업’이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패션 브랜드는 체형이나 스타일이 비슷한 아시아권 진출은 용이하지만 오랜 역사를 지닌 패션 브랜드가 준비한 미국과 유럽 진출에는 한계가 있다”며 “반면 K-뷰티는 글로벌 전역에 인지도가 확산돼 있어 진입장벽이 낮은 데다 한국 브랜드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돼 글로벌 시장을 노리는 기업들 중심으로 시장 진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유희희 기자 yhh1209@



향균 필름 붙이고 ‘안심 쇼핑’ 이마트가 국내 대형마트 최초로 소풍카드 손잡이에 ‘향균 필름’을 부착하고 계산대에 ‘고객안심카드’ 설치를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성수점을 시작으로 이마트와 이마트 트레이더스 158개점, 10만여 대 소풍카드 손잡이에 ‘향균 필름’을 부착한다. 사진제공 이마트

편의점 “골프공·장갑 팝니다”

볼빅 손잡고 카테고리 확대

편의점이 761만 골퍼 인구의 편의성 확대 및 골프 용품 저변 확대에 본격 나섰다.

GS리테일은 국내 대표 골프 브랜드 볼빅(Volvik)과 전략적 업무 협약을 맺고 편의점 GS25에 볼빅의 주요 골프 용품을 21일 업계 단독으로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GS25가 이번에 단독으로 선보이는 볼빅 상품은 △프리미엄 VIVID 컬러 골프공 2종 △골프 장갑 △리그넘 티 등 골프용품 4종을 포함한 총 6종이며, 해당 상품은 골프 용품 전용 매대로 구성된다.

GS25는 올해 골프 용품 전용 매대를 전국 GS25 매장에 본격 전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볼빅과 협업해 GS25 전용 골프 용품을 개발함과 동시에 골퍼 장 인권의 거점 점포를 중심으로 골프 용품 유통망을 확대해 갈 방침이다.

GS25가 골프용품 카테고리를 신설하고 전략적으로 강화하기로 한 데에는 골퍼의 대중화로 국내 골퍼 인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골퍼 인구는 761만 명으로 10년 전 대비 약 3배 늘었다.

GS25는 골프 용품 카테고리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집중 육성함으로써



골퍼 인구의 구매 편의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맹점의 신규 고객 창출 및 수익 상승 효과 또한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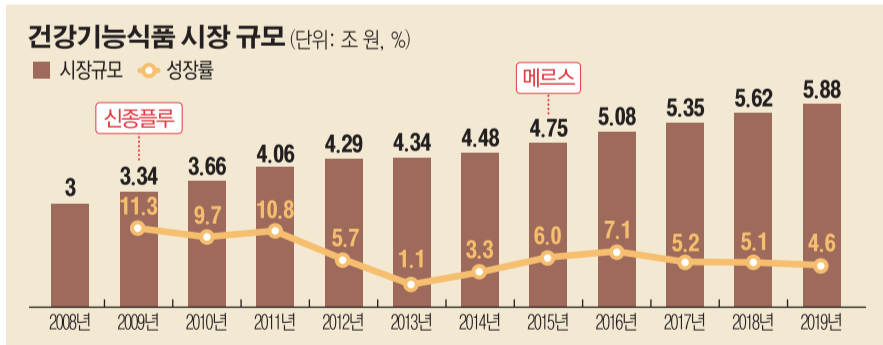
볼빅 골프 용품은 편의점 GS25에 이어 슈퍼마켓 GS THE FRESH, 헬스앤뷰티스토어라라블라에도 순차적으로 확대 도입될 예정이다.

안병훈 GS리테일 생활서비스 MD 부문장은 “편의점이 중심 소비 플랫폼으로 성장하면서 기존에 없던 다양한 상품에 대한 고객 니즈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에 선보이는 골프 용품에 이어 각종 스포츠, 레저 상품 카테고리를 지속 개척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GS25 가맹점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감염병 반사이익... 유통업계 ‘건기식’ 군침

신종플루 10년 만에 2배 성장
포스트 코로나 대비 진출 속도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시장에 유통업체들이 새롭게 뛰어들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설날과 추석 등 명절과 어버이날 선물로 반짝 관심을 끌던 건기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연중 구매 상품으로 확대되면서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롯데쇼핑에 따르면 롯데마트의 지난해 건기식 매출은 전년 대비 23.1% 늘었고, 올해 1월 42.7%에 이어 3월에는 28.4% 올랐다. 이마트 역시 지난해 14.2%였던 건기식 매출성장률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15.2%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현대홈쇼핑의 경우 2~3월 관련 매출이 75%가량 치솟았다. 최근 건기식 판매에 힘을 주고 있는 편의점은 상승세가 더욱 눈에 띈다. 세븐일레븐은 홍삼, 비타민 등 건강식품 매출이 2018년 35.9%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28.3% 상승했다. 올 들어 1월부터 4월까지 성장률은 72.2%에 달한다. CU(씨유) 역시 지난해 71.4% 성장률을 기록했다. 통상 건기식 소비는 연말부터 연초까지가 성수기다. 겨울철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데다, 성탄절과 설날로 이어지며 선물 수요가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는 2월부터 코로나19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2009년 신종플루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 전염성 질환 발생 시기에 구매가 높았다”면서 “포스트 코로나로 건기식 수요가 높아질 것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폴모니터에 따르면 2009년 건기식 시장 규모는 3조34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3% 커진 이래 3년간 매년 10% 내외로 확대됐다. 이후 1~5%로 주춤하다 메르스를 기점으로 다시 5~7%씩 성장했다. 지난해 시장규모는 5조8803억 원으로 10년 새 2배 가까이 몸집을 불린 셈이다. 증권가에서는 코로나를 계기로 다시 매해 10% 내외씩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유통업계의 발걸음이 바쁘다. 롯데마트는 2015년 론칭한 친환경 자체브랜드(PB) ‘해빗’을 2018년부터 건강기능식품으로 키우고 있다. 최근 비타민 등 건기식

으로 범위를 넓혔고, 대체육 시장을 겨냥한 비건 식품 ‘고기대신’까지 내놓으며 광복 행보를 보이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최근 지난해 8월 론칭한 건기식 전문 브랜드 ‘리턴업(Returnup)’의 라인업을 확장해 성별 중심의 제품에서 40세 이후 연령별, 기능별로 제품군을 이원화하고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를 모델로 기용해 마케팅을 강화했다. CJ오쇼핑도 최근 건기식 PB ‘닥터원’의 ‘탱글탱글 콜라겐’을 론칭했고, 롯데홈쇼핑은 지난달부터 건기식 전문 프로그램 ‘건강플러스’를 시작했다. 티몬도 PB 브랜드인 ‘236:’를 통해 ‘홍삼정 스틱’ 등을 판매하고 있다. CU는 2016년 도입 초기보다 3배 이상 취급 상품 수를 늘려 현재 약 20여 종의 건기식을 판매하고 있다. 이마트24 역시 지난해 ‘비타C투게더’의 상표 등록을 마치고 PB 제품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 남주현 기자 jooh@

신세계조선호텔 신규 브랜드 ‘그랜드 조선’ 확정

신세계조선호텔이 2020년 새롭게 선보일 신규 호텔 브랜드로 ‘그랜드 조선(Grand Josun)’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랜드 조선’은 기존 조선호텔의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혁신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호텔 경험을 제공하는 신세계조선호텔의 새로운 5성급 호텔 브랜드다. 국내를 대표하는 관광도시인 부산과 제주에 적용돼 각각 ‘그랜드 조선 부산’과 ‘그랜드 조선 제주’ 호텔로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그랜드 조선’은 ‘즐거움의 여정(Journey to Delightful Moments)’이란 브랜드 슬로건도 내걸었다. 먼저 선보이는 부산 해운대 ‘그랜드 조선 부산’(사진)은 기존 ‘노보텔 엠베서더 부산’의 리모델링 작업이 완료되는 8월경 총 330실 규모의 특급호텔로 재탄생한다. ‘그랜드 조선 제주’는 12월 오픈을 목표



로 하고 있다. ‘그랜드 조선’ 부산과 제주 호텔은 모두 호스피탈리티 업계 신진 디자이너이자 밀레니얼 세대 대표 디자이너로 알려진 움베르트&포에(Humbert & Poyet)가 디자인 설계를 맡았다. 한채양 신세계조선호텔 대표이사는 “고객에게 가치 있는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유희희 기자 yhh1209@

같은 유형 펀드도 운용사 따라 '순자산 증감률' 희비

공모펀드 7098개로 소폭 늘어
53개사 전체 순자산 1.8% ↑
코로나 사태 변동성 확대 영향
36곳 마이너스... 격차 더 벌어져

주식시장 부진이 이어지면서 운용사들의 자산운용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같은 유형의 펀드도 운용사에 따라 순자산 증감률이 갈리는 등 희비가 엇갈린 모습이다.

11일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자산운용사 53개사의 국내 공모펀드가 지난해 7053개에서 올해 7098개로 소폭 늘었다. 전체 순자산 총액도 207조2326억원에서 211조316억 원으로 1.83% 증가했다. 그러나 순자산이 늘어난 자산운용사는 소수(17사, 32%)에 불과해 격차는

베어마켓 공모펀드 순자산 추이
(단위: 원, 5월 8일 종가 기준)

자산운용사	2019년	2020년	증감률
한화	80억	233억	191.29%
삼성	1조4752억	3조7262	152.59%
한국투신	334억	461억	38.01%
미래에셋	3512억	2909억	-17.15%
KB	2181억	1632억	-25.14%
키움투자	751억	543억	-27.75%
하나UBS	34억	23억	-33.40%
NH-이문디	1524억	707억	-53.60%

※ 출처: 펀드스퀘어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6사는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국내주식(-8.85%)을 비롯해 국내채권(-7.31%), 국내대체투자(-1.77%) 등이 급감했다. 유일하게 증가한 것은 MMF(머니마켓펀드)로 부동산 자금이 머무는 초단기 투자상품이다.

15% 급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주식과 채권, 금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모여든 영향이다.

오광영 신영증권 연구원은 "MMF는 시중에 떠도는 유동자금과 법인 여유자금 등이 유입하면서 설정액이 증가했다"며 "반면 주식형 펀드는 레버리지가 포함된 인덱스 관련 유형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성 환매 증가로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자산운용사 간 희비도 갈렸다. 같은 유형의 펀드를 운용하더라도 재간접, 파생형, 인덱스 등 방식이나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에 따라 순자산 증감에 차이가 벌어졌다. 특히 중소형사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전체 증감률로는 베어마켓(하락장)과 바이오계약(헬스케어), 연금저축 관련 테마 펀드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한 반면 공모주와 중국본토 펀드가 크게 하락했다.

일 년 새 증가폭이 88.93%로 가장 큰 테마 펀드는 지수 하락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베어마켓형으로 집계됐다. 한화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해당 펀드들의 순자산이 191.29%, 152.59%, 38.01% 늘었다. 반면 NH아문디자산운용(-53.60%), 하나UBS운용(-33.40%), 키움투자운용(-27.75%), KB자산운용(-25.14%) 등은 감소했다.

계약바이오(2.63%)도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특히 블랙록자산운용(88.93%), 메리츠자산운용(53.69%), DB자산운용(11.00%), 피델리티(2.24%) 등이 선방했다. 그러나 KB자산운용(-20.59%), NH아문디자산운용(-13.13%), 삼성자산운용(-8.36%), 미래에셋자산운용(-1.11%) 등 대형사들은 감소세를 보였다.

한편 공모주 펀드는 주식시장 부진 여파로 전년 대비 37.33% 급감했다. 순자산이 늘어난 곳은 NH아문디자산운용(437.78%), 미래에셋자산운용(119.16%), 유진자산운용(39.07%), 마이다스자산운용(5.99%), BNK자산운용(15.61%) 등 소수에 불과했다. 교보약사자산운용(-69.16%), 칸서스자산운용(-63.29%), HDC자산운용(-58.34%), 흥국자산운용(-54.08%) 등이 줄었다.

최황 한국펀드평가 연구원은 "순자산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다"며 "신규 고객이 많이 유입됐거나 기존 펀드 수익률이 늘어 순자산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차익 실현 등으로 환매하는 경우도 있어 순자산만으로 단정지를 순 없다"고 덧붙였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지수보다 종목”... 인덱스 수익률 추월한 액티브펀드

코로나 사태에 제약·바이오·엔택트 관련 중소형주 강세
한 달 평균 수익률 6.33% ↑ ... “종목장세 당분간 지속”

국내 증시가 중소형주 위주의 종목 장세가 펼쳐지면서 한동안 인덱스펀드에 밀리던 액티브펀드 수익률이 역전에 성공하고 있다.

1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8일 기준 국내 설정액 10억 원 이상 펀드의 수익률을 집계한 결과 국내주식형 액티브펀드 572개의 최근 1개월 평균 수익률은 6.33%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주식형 인덱스펀드 386개의 수익률은 평균 5.18%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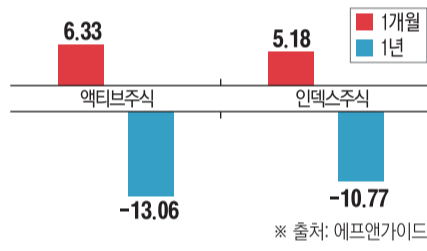
액티브펀드는 펀드매니저가 직접 종목을 골라 담으면서 지수 이상의 성과를 추

구하는 펀드를 뜻한다. 반면 패시브펀드도 불리는 인덱스펀드는 시장 대표지수나 업종지수를 추종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한다.

액티브펀드는 유형별로 중소형(9.72%), 섹터(6.30%), 일반(6.27%), 테마(6.16%), 배당(4.75%) 등 순으로 수익률이 높았다. 액티브펀드는 전 상품이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인덱스펀드도 기타(6.43%), 섹터(6.01%), KRX300(4.48%), 코스피200(3.83%) 등 유형에서 수익률이 선방했지

펀드 유형별 평균 수익률
(단위: %, 8일 기준, 설정액 10억 원 이상 펀드 기준)



※ 출처: 에프앤가이드

만 액티브펀드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앞서 한동안 액티브펀드는 인덱스펀드를 수익률에서 이기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인덱스펀드의 대형주 편입 비중이 액티브펀드보다 높는데 삼성전자 등 대형주가 증시를 주도하는 모습이 오랜 기간 펼쳐졌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1년 평균 수익률로 보면 인덱스펀드(-10.77%)가 액티브펀

드(-13.06%)보다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그러나 최근 코스닥이 코스피 수익률을 앞섰고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액티브펀드가 약진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침체 영향을 덜 받는 제약 바이오주, 엔택트 관련주들이 두각을 나타내며 종목 장세를 이끌었다.

액티브펀드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마이다스미소중소형주증권투자신탁(주식)C-F'(15.21%)의 경우도 카카오, 네이버, 엔씨소프트, NHN한국사이버결제 등 엔택트 수혜 종목과 엘앤씨바이오 등 바이오 종목을 담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중소형주 위주의 종목 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지영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로나 사태로 기업의 이익 둔화가 불가피해진 상황인 만큼, 이익 성장 자체가 과거 어느 때보다 희소해졌다"며 "이는 투자자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IT, 성장주, 엔택트 관련주에 자금을 투입하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단기 급반등한 부담감이 있고, 2차 웨이브 경계감과 돌발변수인 미·중 무역분쟁 우려 등을 감안 시 이달 증시는 지수 상단이 제한될 전망"이라며 "다만 개인투자자의 여유자금에 풍부해 주식시장 자체가 위축되지 않을 것임을 고려하면 개별주 장세 가능성이 크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랜섬웨어 정보센터 www.hauri.co.kr

당신의 소중한 파일을 노리는
랜섬웨어

알려지지 않은 최신 랜섬웨어

바이로봇 Anti-Ransomware

보안취약점을 통해 유입되는 랜섬웨어

바이로봇 APT Shield 2.0

이미 알려진 랜섬웨어 동작 시

바이로봇 7.0

하우리, 바이로봇으로 차단하세요!

수년간 축적된 소중한 데이터를 한 순간에 암호화 시켜버리는 랜섬웨어.
대한민국 대표백신, 바이로봇 솔루션으로 랜섬웨어를 차단하고 소중한 데이터를 지키세요.

(주) 하우리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38 (예말빌딩) 6층 | 대표전화 02-3676-1100

부채비율 61% '안정' ... 100억 BW 추진

상장사 재무 분석

팬스타엔터프라이즈

팬스타엔터프라이즈가 2012년 이후 8년 만에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에 나선다. 재무안정성은 양호하지만 수익성이 취약한 데다 계열 지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참여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팬스타엔터프라이즈는 100억 원 규모의 BW를 공모 발행하기로 했다. 사채 비율은 표면 2%, 만기 4%이고 행사가액은 858원으로 결정됐다.

BW의 권리행사 기간은 6월 28일부터 2025년 4월 28일까지이며 청약일은 25일, 납입일은 28일이다.

회사 측은 조달 자금 중 70억 원은 20~21회차 전환사채와 기타 차입금 상황에, 나머지 30억 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자동차 정비 기기와 유람선 사업 분야 매출 감소를 대비한 선제적 운영자금 확보와 신제품 개발 등에 쓸 계획이다.

회사의 재무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현금흐름이 부진함에도 유상증자,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소규모 합병으로 자본

팬스타엔터프라이즈 주요 지표 추이 (단위: 억 원, %)

	2017년	2018년	2019년
매출	335	284	372
영업이익	27	7	16
EBITDA	39	26	42
총차입금	87	86	187
부채비율	48.3	42.9	61.3

을 확충해 부채비율은 작년 말 기준 61.4%로 안정적이다. 다만 주요 계열사의 실적 부진이 팬스타엔터프라이즈의 재무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용선 업체인 팬스타로부터 채권 회수가 지연되는 모습을 보이며, 팬스타에 대한 용선료 인하 조치를 비롯해 작년 11월에는 95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 정익수 연구원은 "코로나19의 영향에 직접 노출된 크루즈 여객사업의 일시적 영업 차질과 선박 대여사업의 용선료 인하 조치, 자동차 정비기기 사업의 수출 제약 등을 고려할 때 부분간 실적 부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라며 "또 불리한 상황에 따른 계열부담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업 다각화 과정에서 투자 부담이 확대될 수 있어 가변적인 재무구조가 지속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IPO 시장 '언택트'로 기지가 쏜다

코로나에 3~4월 수요예측 전무 하반기 증시 정상화 기대감 커져 카뱅·티몬, 상장 준비 작업 돌입 솔트룩스 '기술특례상장' 도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언택트 관련기업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IPO(기업공개) 시장에서도 언택트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8일까지 총 22개 기업이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2곳, 3월 4곳(스팩 2곳 포함)에 불과했고 수요예측은 3월과 4월 두 달 연속 전무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돼 하반기에는 증시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예비심사 청구 기업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8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이 42조 원을 넘어 투자 수요가 풍부한 것 역시 기업들이 IPO를 서두르는 배경으로 꼽힌다.

특히 올해 IPO에 도전하는 기업들 중

코로나19로 변화된 산업지형을 반영한 기업들이 높은 기대를 받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어지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화두로 떠오르자 언택트 기술 보유 기업의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 여기에 정부도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5세대(5G) 이동통신,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은 카카오뱅크와 티몬이다. 이들 기업은 수치상 실적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비대면 금융 서비스 전문업체인 카카오뱅크는 올해 1분기 고객 수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다. 1분기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2019년 1분기 65억6600만 원) 대비 181.3% 늘어난 184억7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당기순이익 137억3300만 원을 웃도는 액수다.

상장을 통해 확보된 금액으로 언택트 서비스 개발과 사업 확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윤희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지난달 미디어 간담회에서 상장사처럼 분기별 실적

발표를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표는 올해 하반기부터 IPO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커머스 업체인 티몬도 올해 3월 10년여 만에 첫 월간 흑자를 기록했다. 티몬은 지난달 말 미래에셋대우를 상장대표 주관사로 선정하고 IPO 절차에 돌입했다. 티몬이 성공적으로 IPO를 추진하면 국내 이커머스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증시에 입성한 사례가 된다.

대학편입 전문교육 기업 아이비김영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기조로 재조명되고 있다. 이 회사는 스펙 합병으로 코스닥 시장 상장을 예고한 바 있다. 2011년 메가스터디에 인수된 이후 오프라인 영역에 이어 인터넷 동영상 교육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AI플랫폼을 앞세운 솔트룩스는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기술특례상장에 도전한다. 언택트 기조의 확산으로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 회사가 공급하는 AI 콜센터 공급 사례가 늘면서 각광 받고 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완전자본잠식서 부채비율 126%로

한계기업 돋보기

나노스

나노스 차입금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전환사채가 시장에서 소환될 것으로 보여 차입 부담과 재무안정성 개선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재무안정성 판단의 주요 잣대가 되는 유동비율과 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를 보면 나노스는 지난해 연결기준 유동비율 77.1%, 부채비율 126.1%, 차입금 의존도 77.7%를 기록했다.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것으로 기업의 지불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200% 이상으로 유지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통상 100%만 넘어도 안전하다고 판단한다. 부채비율은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 중 부채가 얼마 정도 차지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 200%를 넘으면 위험한 것으로 간주한다. 차입금 의존도는 기업이 차입금에 의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이자

등 금융비용의 부담이 커 수익성이 떨어지고 안정성은 낮아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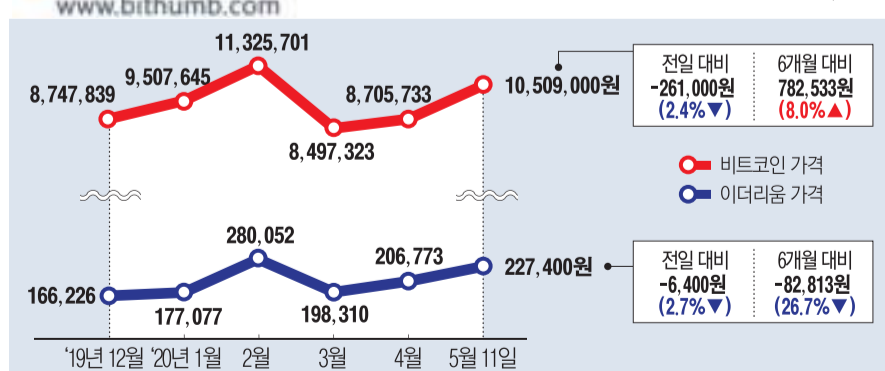
나노스가 한창 고성장하던 2011~2013년 차입금 의존도는 30~40%대로 작년의 절반가량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2011년에는 유동비율 87.0%, 부채비율 424.0%, 차입금 의존도가 46.0%로 부채비율이 높았는데, 차입금 의존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매입채무가 130억 원 있었기 때문이다. 이어 2012년 코스닥시장에 입성하면서 자금을 확충한 결과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는 각각 198.0%, 35.0%로 내려갔고 유동비율은 110.0%로 개선됐다.

그러다 실적이 급전직하하던 2014년부터 세 지표는 각각 81.0%, 210.0%, 50.0%로 재차 나빠졌으며, 500억 원대 영업손실과 1000억 원대 순손실로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된 2015년에는 유동비율 53.0%, 부채비율 382.0%, 차입금 의존도 85.0%가 됐다. 2016년에는 법정관리하에서 자본감소와 채권자의 출자전환, 광림피인수 자금의 유입으로 자본이 늘어 차입금 의존도는 19.0%까지 내려갔다.

조남호 기자 spdran@

bithumb 빗썸

빗썸 지수 (2020년 5월 11일 17:00, KST)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노란우산은 KBIZ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연 최대 500만 원 소득 공제

공제금 납류 금지

중장기 목돈 마련

연 복리 이자 지급

마음 똑 놓고 오래오래~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씬세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대한민국 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세법에 따라 부동산임대소득과 법인기업의 대표자 중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

Google play / 애플 앱스토어에서 노란우산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KBIZ 중소기업중앙회

‘공공 재개발’로 주택 공급한다지만... 사업성 확보 관건

재개발 중단된 세운5·흑석2 등 조합 설립 못한 102곳 후보로

임대주택 비율 확대 주민 반발 ‘공공-사업성 균형 맞출 방안 필요’

구역명	위치	주택 공급 규모	정비구역 지정 연도
창신2구역	종로구 창신동	900	2004
성북1구역	성북구 성북동	2044	2004
세운5구역	중구 산림동	1038	2006
전농9구역	동대문구 전농동	1515	2008
흑석2구역	동작구 흑석동	508	2008

※ 창신2구역, 성북1구역은 정비예정구역

발 사업을 말한다. 국토부는 공공 재개발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을 ‘주택 공급 활성화지구’로 지정해 집중 지원키로 했다. 우선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성과를 살펴본 뒤 수도권 다른 지역이나 지방 광역시 등으로 공공 재개발을 확대해 나간다는 게 국토부 구상이다.

주택 공급 활성화지구로 지정되면 용도 지역(種) 상향·용적률 인상 혜택을 받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통상 10년가량 걸리는 각종 인허가 기간도 5년으로 줄어든다. 중도금, 이주비 마련을 위한 금융 부담도 완화된다.

혜택을 받는 만큼 공공 재개발 사업장에 저야 하는 의무도 무겁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주택 공급량 가운데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내놔야 한다. 일반분양 주택에도 의무 실거주 기간은 최대 5년,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연장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르면 9월 공공 재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마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곳 가운데서 선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비구역 지정 등에 필요한 행정 기간을 단축할 수 있

을 뿐 아니라 주택 노후도·밀도 등 개발 필요성이 이미 입증된 지역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등은 현재 재개발·도시환경정비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357곳 가운데 102곳이 구역 지정 후 10년 넘게 조합을 출범시키지 못한 것으로 파악한다. 정비예정구역 등을 합치면 후보지는 110곳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 가운데는 재개발 ‘블루칩’으로 꼽히는 사업장도 적지 않다. 도심 노른자 땅 재개발로 주목받은 중구 산림동 ‘세운5구역’이 대표적이다. 세운5구역은 1038가구 공급을 목표로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지만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내몰림) 논란과 사업지 축소로 반 복되면서 개발이 계속 지연됐다. 흑석2구역도 2008년 정비구역 지정 후 토지 소유주 간 갈등 등으로 조합 설립을 못하고 있지만, 개발만 되면 한강 조망권을 갖춘 흑석뉴타운 알짜 단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주민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다. 정비업체에선 정부가 정비사업 활성화 기조를 밝힌 것은 환영하면서도 임대주택 확대 의무엔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모 등 여러 시범사업 추진

방식을 고민하고 있지만 주민 동의율을 채우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북구 A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정책을 전환한 것 자체는 잘한 것”이라면서도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겠다는 건 주민 피해를 대가로 나라나 시에서 집장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공공 재개발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우리 같이 사업 진행이 잘 되는 곳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종로구 B구역 추진위 관계자도 “용적률을 높여주고 이익을 보장해준다는 건 긍정적으로 봐야 하지만 임대아파트 확대는 또 다르게 고려해야 할 점”이라고 평가했다.

최진도 국토연구원 연구원은 “정비사업 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공공 재개발 확대 정책은 시의적절하다”면서도 “공공성과 사업성 간 균형을 맞출 세부적인 법적 제도, 금융 지원 방안이 추가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주택 공급 카드로 ‘공공 재개발’을 꺼내 들었다. 사업이 지지 부진한 재개발 지역에 공기업이 시행자로 들어가 주택 공급을 주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정비업체에선 사업성 확보 방안이 부족하다며 외면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공공 재개발 활성화로 서울지역에 2022년까지 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주택 공급 정책 6가지 중 가장 규모가 크다. 공공 재개발 활성화가 이번 공급 정책 성과를 좌우하는 키가 될 것이란 의미다.

공공 재개발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기업이 단독·공동 시행자로 참여하는 재

광명·위례 1755가구 쏟아진다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
분양가 3.3㎡당 1900만 원대

위례 마지막 민간 분양 아파트
우미린2차 이번주 모집공고

5월 경기도 광명뉴타운·위례신도시 주요 분양 예정단지

지역	단지명	가구수	건설사
경기도 광명시 광명뉴타운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	1335	대우건설
	경기도 하남시 위례신도시 우미린2차	420	우미건설

수도권 노른자 지역인 경기도 광명뉴타운과 하남 위례신도시에서 두 개 단지가 잇따라 분양시장에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또다시 확산 위기에 놓였지만 주택시장에 퍼져 있는 새 아파트 선호 현상과 ‘로또 단지’ 분양에 대한 열망으로 이들 단지는 청약 열기를 내뿜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광명뉴타운 15구역에 재개발하는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 아파트가 이번주 사이버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 총 1335가구 규모로 이 중 464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이 단지는 광명뉴타운에서 나온 두 번째 새 아파트다. 광명뉴타운에서 일반분양이 이뤄지는 건 2017년 분양된 ‘광명 에코자이위브’로 무려 3년 만이다. 당초 지난해 분양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분양가를 두고 조합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졌다.

분양가는 3.3㎡당 1900만 원대로 확정됐다. 조합이 당초 요구했던 것보다 약 200만 원 가량 낮다. 전용면적 59㎡형 기준으로 분양가는 4억1680만 원부터 5억2020만 원선이다. 올해 11월 입주하는 바로 옆 16구역(‘광명 에코자이위브’)의 같은 주택형 입주권이 지난해 최고 6억2912만 원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시세보다

약 1억 원가량 낮은 가격이다.

광명동 G공인 관계자는 “광명뉴타운은 대부분의 구역이 관리처분인가를 받거나 이미 이주를 진행하는 등 분양이 가시화하고 있다”면서도 “워낙 인기 지역인 데다 새 아파트 선호 현상이 심한 상황이라서 코로나19 사태에도 청약 수요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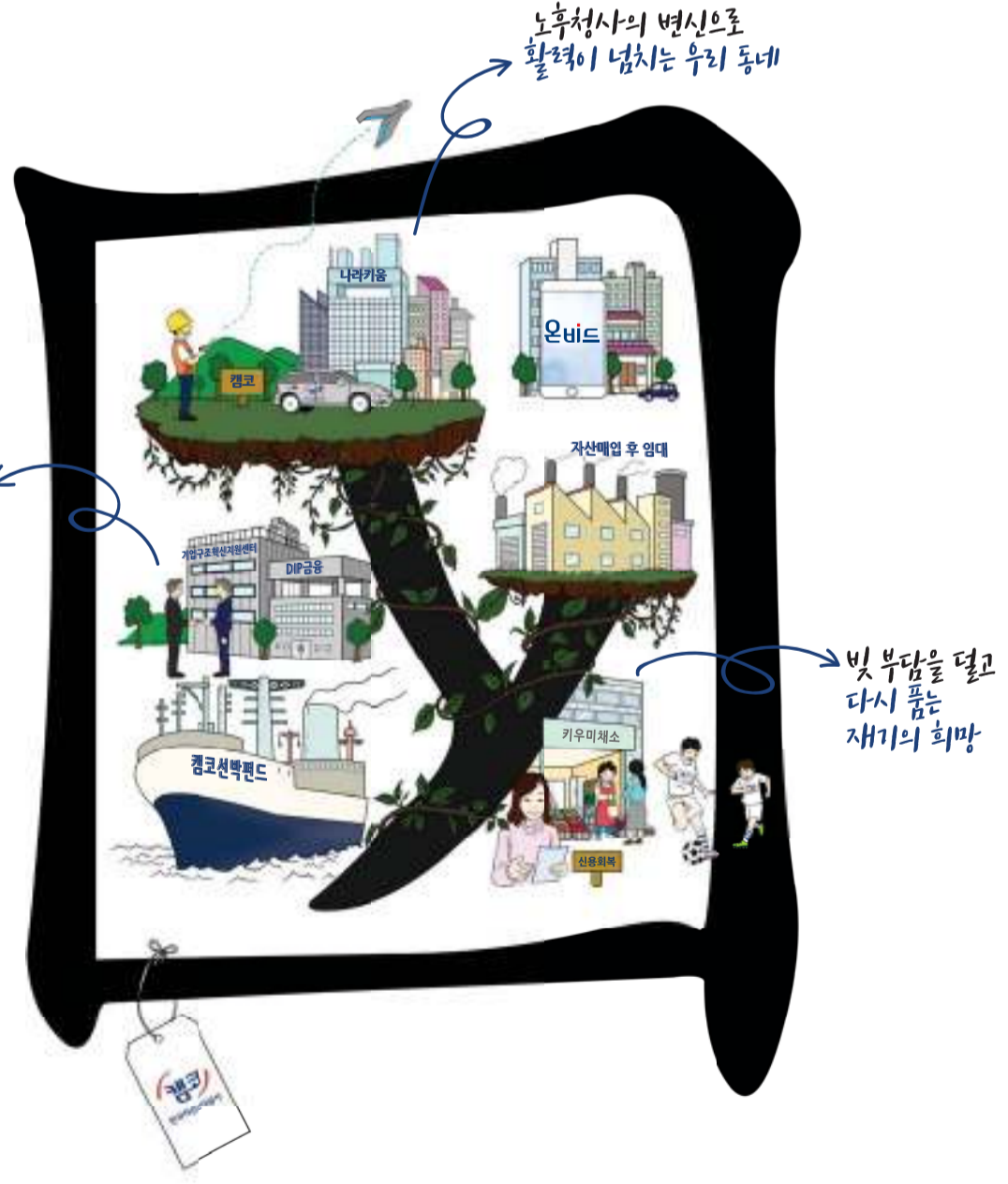
수도권 알짜 중 알짜로 꼽히는 위례신도시에선 우미건설이 분양하는 ‘위례신도시 우미린2차’가 분양 대기 중이다. 전용 99~112㎡ 규모의 중대형 아파트만으로 이뤄진 단지로 모두 420가구가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르면 이번주 입주자모집공고나 올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위례신도시 우미린2차 아파트에도 청약통장이 대거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월 분양한 ‘중흥S-클래스’는 전매제한 기간이 10년인데도 4만4448명의 청약자가 몰리며 평균 104.3대 1 경쟁률을 보였다. 청약 가점도 최고 79점을 기록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위례신도시 우미린2차 분양가가 3.3㎡당 평균 1960만 원 수준으로 인근 아파트 시세 대비 4억 원가량의 낮은 데다 이 단지를 끝으로 더이상 위례신도시에서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이 나오지 않아 청약 대기자들이 대거 몰릴 것 같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대한민국의 자산은 무엇일까요?



캠코가 국민과 기업의 재기를 돕고 국가자산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코로나 불똥’ 맞은 원룸시장 서울 월세, 3개월 연속 하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원룸 임대차시장도 침체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업체 다방에 따르면 4월 서

울지역 원룸 월세(전용면적 33㎡ 이하)는 보증금 1000만 원 기준 52만 원으로 전월보다 2% 하락했다. 다방 조사에서 서울지역 원룸 월세가 떨어진 건 2월부터 석 달째다.

다방 관계자는 “4월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서울 원룸, 투·스리룸 시장에서는 하락세가 지배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인보사 의혹’ 코오롱 임원들 잇단 보석 신청



이우석 대표 제외한 임원 3명 혐의 부인... 불구속 재판 요구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 임원들이 연달아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고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권성수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에 대한 보석 심문을 마쳤으며, 결정을 앞두고 있다.

같은 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책임자(CFO) 권모 전무와 양모 본부장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인보사 사태’로 구속기소된 4명 중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 3명이 모두 보석 신청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억과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억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억 형질 전환 세포는 연골세포

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 유래 세포인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품목 허가가 취소되고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조 이사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꾸며낸 자료로 82억 원의 국가 보조금을 타내거나 미국 임상시험이 중단된 사실을 숨겨 회계법인의 감사 업무를 방해하고,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 등도 있다.

이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조 이사 측 변호인은 “검사가 주장한 실험 결과 삭제 등은 모두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인보사의 안전성을 이해하려면 여러 성분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인데 검사가 이를 혼동했다”고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조 이사 등의 보석 신청이 인용되면 무죄를 주장하는 이 대표도 보석 신청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앞선 공판에서 “전 세계 골관절염 환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근본 치료제 시장의 최초 진입자로서 획기적인 수입을 창출해 투자자들이 이익을 얻는다면 누가 어떤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냐”고 항변했다. 김종용 기자 deep@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TV에 게재됐습니다



중국발 황사의 유입으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1일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옇다. 기상청은 당분간 전국의 공기 상황이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이어가다 금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토요일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다고 예보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MCMC(믹맥랩)는 MCM과 유사 상표”

대법 “상표등록 무효로 해야”

중소 패션 브랜드 믹맥랩의 등록상표(MCMC)가 패션브랜드 엠씨엠(MCM)의 유사 상표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MCM이 믹맥랩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가방, 지갑 등을 제조하는 믹맥랩은 2017년 상표등록을 했다. 2004년 상표등록을 해둔 MCM은 믹맥랩 등록상표가 유사 상표라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믹맥랩의 상표는 윗줄에 대문자로 MCMC가 크게 있고 아랫줄에 작은 글씨로 'MICMAC LAB'이 배치됐다. MCM의 등록상표는 대문자 'MCM'이 배치된 구조다.

특허법원은 “양 상표 표장은 호칭, 외관, 관념 면에서 서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해 상품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의 등록상표 'MCMC'는 수요자들이 상표로부터 저명한 선등록 상표인 'MCM'을 쉽게 연상해 출처에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여려가 있으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MCMC' 부분은 수요자들이 특별한 어려움 없이 '엠씨엠씨'로 발음하게 된다”며 “선등록상표 'MCM'은 '엠씨엠'으로 발음되는데 피고의 상표의 경우 '씨'라는 음절이 추가된 정도의 차이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가 영업활동을 하면서 '믹맥랩'이라는 상호를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수요자들 대부분이 상표를 '믹맥', '믹맥랩'으로 호칭·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법원, 조주빈 범죄수익 1.3억 동결

가상화폐 등은 심리 중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사진·24)의 주거지에서 검찰이 압수한 현금 1억3000만 원에 대해 법원이 추정보전을 명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가 조 씨 체포 당시 주거지에서 압수한 현금 1억3000만 원에 대해 청구한 추정보전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특별수사TF는 지난달 28일 법원에 가압류 집행 절차 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재 집행을 완료했다. 다만 경찰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한 조 씨의 가상화폐 지갑 15개, 증권 예탁금과 주식 등의 몰수보전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조주빈

검찰 관계자는 “조주빈에게서 압수한 1억3000만 원에 대한 추정보전은 인용된 상태”라며 “가상화폐 지갑 등에 대해 경찰의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 건은 (검찰이) 청구했고 아직 심리 중”이라고 밝혔다. 몰수·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처분 등을 금지하는 조치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확정판결

이 나올 때까지 관련 재산은 동결된다. 조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 피해자 25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판매·배포한 혐의로 지난달 13일 구속 기소됐다. 확인된 피해자 가운데 8명은 아동·청소년이다.

조 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 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유사성행위 △강간 △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자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14개다.

김종용 기자 deep@

재미

공감

위로

브라보, 함께해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채널 TV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공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들을 유튜브 채널 브라보 채널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채널 TV)

구독 문의 (02) 799-2680

박원순 “이태원 클럽 방문자, 코로나 익명 검사 허용”

신변안전 보장, 빨리 검사 받아야
연락 불통 3112명 추적에 총력
헌팅포차 등에도 방역준수 명령



박원순 시장이 11일 서울시청에서 이태원발 코로나19 집단감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이태원 클럽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하면서 ‘익명 검사 제도’를 도입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1일 서울 중구 서울 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신분 노출 우려로 검사를 망설이는 대상자들의 신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익명 검사를 실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가 익명 검사 제도를 도입한 것은 경기도 용인 66번 확진자가 성소수자들이 주로 찾는 클럽을 다녀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비안이나 혐오를 우려한 방문자들이 검사를 꺼려하는 등 방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본인이 원한다면 이름을 비워둔 채 보건소별 번호를 부여하고 전화번호만 확인하도록 하겠다”며 “4월 24일부터 5월 6일 사이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거나 인근에 계셨던 분들은 빨리 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검사 결과 확진 받으면 자가 격리 등으로 주변에 알려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얼마든지 음성으로 밝혀질 수도 있고 익명성을 보장한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빠른 시간 내에 검사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의 자발적 검사를 추진하면서 강제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이태원 클럽을 다녀간 분들에게 대해 즉각 검사 이행 명령을 내린다”며 “만약 이태원 클럽을 다녀갔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은 것이 추후 밝혀지면 2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경찰, 이동통신사와 협조해 기지국 접속자 명단을 확보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확보한 명단 총 5517명 중 2405명은 통화가 됐으나 3112명은 불통상태”라며 “5개 클럽과 그 인근에 왔던 사람들에게 대한 접속자 명단을

신속하게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서울시는 헌팅포차 등 유사 유흥업소에 대해 7대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내렸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클럽, 룸살롱,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지만 헌팅포차 등으로 사람이 몰리면서 풍선효과가 일어나고 있다”며 “7대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해당업소에 대해 즉시 집합 금지명령을 내리고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앞으로 2~3일이 고비가 될 것”이라며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시민 여러분께서도 방역 주체로서 생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진희 기자 jh6945@

내일부터 마스크 없이 지하철 못탄다

혼잡도 150% 넘으면 탑승 제한

13일부터 서울지하철 혼잡도가 150%를 넘어서면 마스크 미착용 승객은 탑승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 발생으로 급감했던 대중교통 이용객 수가 3월부터 점차 증가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대중교통 이용 시 생활 속 거리두기 방안’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하철 혼잡도가 80% 이하일 때는 ‘여유’, 혼잡도 80~130%는 ‘보통’, 혼잡도 130~150%는 ‘주의’, 혼잡도 150% 이상일 때는 ‘혼잡’ 단계로 구분해 차별화된 조치를 시행한다.

여유 단계(80% 이하) 및 보통 단계(80~130%)는 안전요원을 투입해 승강장 내 질서 유지 및 승객 분산을 유도한다. 주의 단계(130~150%)에서는 승객 분산 유도와 더불어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특히 강남·홍대입구·신도림·고속터미널 등 주요 혼잡역(10개역)과

환승역(10개역) 승강장에는 6월부터 안전요원을 배치해 승객들이 승차 대기선과 안전거리를 지키며 탑승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열차 내 이동이 불가능한 혼잡 단계(150% 이상)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의 탑승을 제한할 계획이다. 안내 방송을 통해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고 미착용 시 역무원이 개찰구 진입을 제한한다.

마스크 미소지 승객을 위해서는 전역사의 자판기(448개소), 통합판매점(118개소), 편의점(157개소) 등에서 덴탈 마스크를 구매(시중 가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혼잡도 170% 이상이 되면 안내요원의 탑승 통제와 역·관제·기관사 판단으로 혼잡구간 무정차 통과도 가능토록 한다.

서울시는 버스의 경우 증회 운행, 예비차 추가 투입 등 1~3단계별 혼잡도 완화 대책을 시행해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설경진 기자 skj78@

영등포구,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

서울 영등포구는 지역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구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각 가정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설치비 지원 대상은 베란다 난간·옥상(베란다형·사진)이나 주택 옥상·지붕(주택형) 등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로 가정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설치 비용은 서울시와 영등포구 보조금

이 각각 지원된다. 베란다형 태양광의 경우 서울시 보조금은 설치 용량에 따라 500W 이하는 W당 1200원, 1kW 미만 500W 초과인 경우 W당 700원이다. 구 보조금은 가구당 5만 원씩 지원된다. 한 업체의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325W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 48만9000원 중 시·구 보조금 총 44만 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주택형 태양광의 경우 가구별로 서울시



보조금은 kW당 70만 원이며 구 보조금은 60만 원이다. 주택형 태양광 3kW의 경우 설치비 약 500만 원 중 270만 원이 보조금으로 지원된다. 김진희 기자 jh6945@

서초구, 사당~이수역 ‘블록형 금연구역’ 지정

서울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동작대로와 방배천 복개도로 구간을 ‘블록형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11일 서초구에 따르면 블록형 금연구역은 사당역부터 이수역까지 동작대로 보도 구간 640m와 그 이면도로인 방배천 복개도로 940m로서 전체 구간은 약 3만2700㎡에 이른다.

서초구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 30일부터 본격 단속을 할 예정이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5만 원)가 부과된다.

서초구는 블록형 금연구역 내에 흡연구역 3개소를 지정했다. 해당 구간 내 흡연구역은 모두 개방형으로 설치·운영된다.

서초구는 2012년 전국 최초로 강남대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금연구역 확대를 선도해왔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금연구역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선도적인 금연구역 환경을 조성해 담배 연기 없는 서초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사회적 기업 창업과 경영의 모든 것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

바이어로 사회적 기업 창업 시대. 정부 지원과 각종 육성 정책 덕분에 청장년, 퇴직자 등 많은 사람에게 사회적 기업은 도전할 만한 대안이 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육성 프로그램은 전문성식을 이룬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다. 절대 만안하지 않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 하며, 어떤 것들을 갖춰야 할까? 현실은 대충일과 다르다. 실패들은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공공단체가 제공해주는 대충일 말고 실리적인 정보나 경험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사회적 기업은 과연 나의 이상과 현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까?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는 이런 현실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었으며, (주)XODS 이나현 대표가 10년간 현장에서 겪은 창업과 경영의 생생한 노하우를 담은 실용 대충일 이자, 후속한 성장형이다. ODS의 “창업부터 성장 단계별 구체적인 제시와 모델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하려는 분들의 고민에 동행하고 싶은 현세에서의 책임감에서 출판에 기술했다.

이나현 대표도 사회적 기업 초창기에는 도움이나 정보



10권의 책 속에 담긴 1,000권을 읽어내는 느낌의 철학

HOW 10권을 읽고 1000권의 성장을 위한 책읽기기술

어쩌다 보면 힘들다 싶어도 가슴에 남는 구절 하나 있다면 당신은 당분간 책을 손에서 내려놓아야 한다.

읽기의 즐거움을 찾아보면 당신에게 독서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할 뿐 아니라, 같이 있는 위기로 자기 성장의 길을 찾게 한다.

이영호 저 | 232쪽 | 4800원 | 215.800원



▲아우디 Q7

▲폭스바겐 티구안 올스페이스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캐딜락 XT6

큰 놈, 빠른 놈, 똑똑한 놈이 온다



김준형의 **오토인사이드** 수입 SUV 트렌드

2015년 유럽에서 확산한 '디젤 게이트'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 재편을 불러왔다. 동시에 친환경 자동차의 궁극적이었던 전기차 시대로 성큼 도래했다. 자동차 회사들은 서둘러 양산 전기차 준비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장에도 눈을 돌렸다. 고성능차, 나아가 덩치를 키운 픽업트럭과 SUV였다. 국제유가 하락은 자동차 회사들에 다양한 신차를 내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기름값이 오르면 거기에 맞춰 경제적인 소형차를 잇달아 출시한다. 거꾸로 기름값이 내려가면 대배기량 엔진을 얹은 고성능차와 고급차, 픽업트럭 등으로 대응한다.

◇반세기기를 이어온 랜드로버의 플래그십 = 1970년 처음 등장한 레인지로버는 고급 SUV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 반세기 전, '고급차 = 세단'이라는 굴레를 벗어내는 건 커다란 도전이었다. 당시 레인지로버는 특유의 온로드 및 오프로드 주행 능력을 갖추면서도 고급차에 버금가는 다양한 편의 장비를 가득 채웠다. '사막의 롤스로이스'라는 수식어 역시 레인지로버의 명성을 대변하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랜드로버의 대표 모델 레인지로버의 출시 50주년 기념 모델은 이 시대 첨단 기술

을 모조리 담았다. V8 5.0 가솔린 슈퍼차저 엔진은 최고출력 525마력을 낸다. 순발력을 좌우하는 최대토크는 배기량 6000cc 엔진 수준인 63.8kg·m에 달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5.3초면 충분하다. 차체 사이즈별로 스탠드와 롱 휠베이스(LWB) 버전 두 가지가 나온다. 롱 휠베이스 모델의 뒷좌석은 다리 공간이 무려 1.2m에 달해 어설픈 고급 세단보다 한결 편하고 안락하다. 최고급 'SV오토바이 오그래피' 모델은 가격만 3억1467만 원에 달한다.

50주년 기념 레인지로버 랜드로버 첨단기술 집약체 5.3초 만에 시속 100km 도달 GM 디자인 정점 캐딜락 TX6 아메리칸 럭셔리 대표 주자 9단 변속기로 부드러운 주행 아우디 Q7, V6 TDI 엔진 장착 폭스바겐 티구안 올스페이스 소형 이미지 벗은 7인승 모델

◇아메리칸 럭셔리 SUV의 아이콘 캐딜락 XT6 = 캐딜락은 GM의 고급차 브랜드다. 이 가운데 에스컬레이드를 제외한 SUV 라인업은 XT로 꾸렸다. 그리고 그 정점에 XT6가 자리한다. XT6는 V6 3.6 가솔린 직분사 엔진을 얹고 최고출력 314마력, 최대토크 38kg·

m를 낸다. 여기에 9단 변속기를 맞물려 육중한 차체를 가볍게 이끈다. 정속주행을 이어가면 연료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6개의 실린더 가운데 2개는 쉰다. 이른바 '액티브 퓨얼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다. 천연 가죽과 고급 원목, 카본 파이버 등을 아낌없이 쏟아부은 인테리어도 캐딜락 SUV를 대표하기에 모자람이 없다.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에서 최고 안전등급인 '2020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도 거머쥐었다. 가격은 단일 트림을 기준으로 8347만 원이다. ◇포르세 카이엔 DNA를 담은 아우디 Q7 = Q7은 아우디 SUV의 정점이다. 2세대로 거듭난 새 모델은 아우디폭스바겐 그룹이 자존심처럼 여겨온 V6 TDI 엔진을 얹었다. 고급스럽고 역동적인 디자인은 아우디의 LED 기술로 마무리했다. LED 램프로 자동차의 외관 디자인을 완성하는 기술이다. 빛이 하나의 곡선과 면을 상징하는 셈이다. 아우디를 대표하는 SUV답게 다양한 첨단 장비도 가득하다.

차 외부 및 내부의 공기 질리티를 측정하고 시각화된 정보를 통해 공기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프리미엄 에어 패키지'를 갖춰 차량 내부의 공기 질을 보다 깨끗하고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더 뉴 아우디 Q7 45 TDI 콰트로 프리미엄'의 가격은 9662만 원이다. ◇차 길이 늘린 폭스바겐 티구안 올스페이스 = 새 티구안은 2세대로 거듭나면서 골프의 아우라에서 완전히 벗어나 독자적인 모델로 성장했다. 소형SUV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점진적으로 차 크기도 키웠다. 그렇게 등장한 차가 티구안 올스페이스. 티구안 역사상 최초로 등장한 7인승 모델이기도 하다. 기본모델인 티구안보다 차 길이는 무려 215mm, 휠베이스는 110mm 길어졌다. 자연스레 실내는 중형 세단급의 공간을 확보했다. 2열 레그룸 역시 60mm가 더 늘어나 넉넉한 뒷좌석 공간을 자랑한다. 엔진은 직렬 4기통 2.0 TDI 엔진을 얹고 최고출력 150마력을 낸다. 가격은 4827만 원. 기아차 쏘렌토 풀옵션이 4000만 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이해할 만한 수준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타보니 렉서스 하이브리드 SUV RX 450hL

날렵한 외모·3열 배치 넓은 실내 정숙함까지... 세단 부럽지 않네

RX 450hL(사진)은 렉서스가 한국 시장에 처음 선보인 3열 하이브리드 SUV다. 전반적인 차체는 길쭉하면서도 말끔하다. 전면부에는 렉서스 디자인의 상징인 '스핀들 그릴'이 모양을 바꿔 큼직하게 자리했다. 그릴은 기존의 가로형 대신, 한가운데 있는 렉서스 로고를 향해 모여든 형태로 더 역동적인 인상을 완성한다. 날카로운 화살을 형상화한 주간주행등과 트리플 LED 헤드램프로 그릴과 어우러진다. RX 450hL의 길이(전장)는 5m에 달해 2열 좌석형 RX 모델보다 110mm 더 길어졌다. 높이(전고)도 1720mm로 15mm 높아졌다. 내비(전폭)는 밀그림이 된 RX 450

(1895mm)과 동일하다. 실내 공간을 보면 RX 450hL을 '리무진'으로 부르는 이유를 알 수 있다. 2열에는 독립식 시트 '프리미엄 캡틴 체어' 두 개가 자리했다. 2열에 두 명만 앉을 수 있지만, 그만큼 넉넉하고 편하다. 3열에도 두 명이 앉을 수 있는 시트를 넣었다. 이곳에도 전용 공조 장치와 스피커가 달려 있다. 2열보다 시트 위치가 높지만, 극장식 배열 덕에 답답함이 없다. 다만, 키가 약 180cm 이상 되는 성인이라면 3열에 장시간 앉아 가기에는 무리다. 2열 시트를 앞으로 바짝 당겨도 무릎 공간이 편할 정도는 아니다. 3열을 접어 적



재 공간으로 사용하고, 2열을 넉넉하게 사용하기에 제격이다. 3열 시트는 전통적으로 간편하게 접고 펼 수 있다. 운전석에 앉으면 입체적인 대시보드와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한눈에 들어온다. 가죽과 나무 무늬 장식은 과하지 않고 고급스럽게 어울린다. 노트북 터치패드처럼 사용하는 리모트 컨트롤러는 시야를 전

면에 두고서도 간편하게 공조와 내비게이션, 오디오를 조작하게 돕는다. RX 450hL은 V6 3.5리터 가솔린 엔진과 전기모터를 결합했다. 이를 바탕으로 최고출력 262마력, 최대토크 34.2kg·m의 힘을 낸다. 변속기로는 e-CVT가 맞물린다. V6 엔진에 전기 모터가 힘을 보태는 덕에 리터당 복합연비는 13.3km에 달한

다. 2중 저공해차 인증을 받아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전기모터만으로 움직이는 저속에서는 조용하게 미끄러지듯 달린다. 속도를 내기 시작해도 진동과 소음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야 엔진 구동음이 들린다. 가속력도 훌륭하다. 노멀(normal) 모드에서도 순간 가속력이 충분하다. 스포츠(sport) 모드에서는 앞으로 치고 나가는 가속력이 확연히 달라진다. 특히, 부드러운 스티어링 휠 감각이 인상적이다. 흡사 "한 손가락으로도 쉽게 돌아간다"는 말이 체감된다. 물론 고속 영역에 접어들수록 묵직함으로 차체를 붙잡아낸다. 다이내믹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추적 어시스트 등의 첨단 기능은 편안한 운전을 돕는다. 가다 서기를 반복하는 도심에서 차간거리 유지와 정지를 안정적으로 해낸다. 렉서스 RX 450hL은 가족이 타기에도, 비즈니스용으로든 어울리는 다재다능한 SUV다. 판매가격은 9527만 원. 유창욱 기자 woogi@



Class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세계 최경량 세계 최고 고반발 장타 설계기술력 - 뱅

Par5 3Shot 합산

+100_{yd} 더 나간다

1st Shot +30~50yd
세계 최고 고반발 드라이버

2nd Shot +30~40yd
세계 최초의 초고반발 우드

3rd Shot +30~40yd
세계 유일한 고반발 아이언

205g~ 44%더 가벼운
세계 최경량 기술

최적화 기술 적용

BIG BANG Light

모든 업체가 뱅골프의 고반발 기술을 따라하고 경량화 기술을 쫓아오지만 이미 뱅골프는 제3의 신기술 - 최적화 기술로 골프를 쉽고 편하게 하고 있다

PGA 톱 프로처럼 클럽을 만들어 준다면 나도 프로선수 처럼 잘 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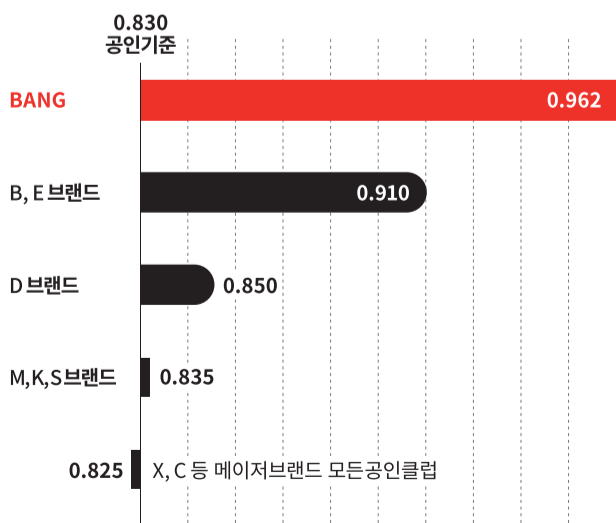
프로 골퍼가 잘 치는 것은 뛰어난 스윙 기술과 최적화된 골프채 덕분입니다. PGA 톱 프로는 첨단 스윙분석을 거쳐 그 프로에게 최적화된 수십 개의 클럽을 만든 후 그중에서 가장 감이 좋은 것을 골라 씁니다.

스윙기술이 부족해도 세계 최고 고반발 기술 + 세계 최경량 기술이 있는 뱅골프 클럽으로 PGA 프로처럼 최적화 기술을 적용한 골프채를 만들어준다면 나도 +30yd 더 잘 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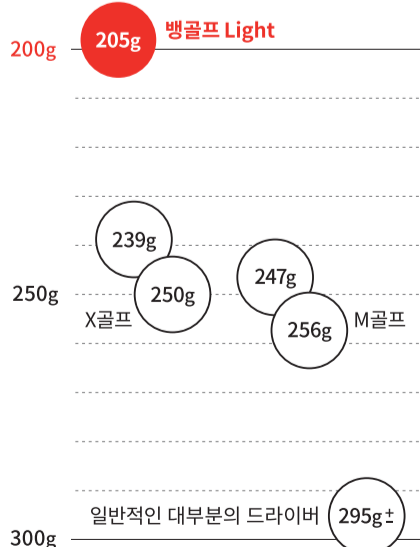
VVIP 고객님의 프로선수와 같은 관리 시스템으로 최적화 기술 적용 및 사용 후 수정 최적화

品格

고반발 기술 격차



경량화 기술 격차



최적화 기술 수준 격차

	BANG Light	타사
드라이버 사양 종류	999,000가지	획일적인 몇가지
드라이버 무게 종류	205g ~ 325g까지 120가지	단일 무게 혹은 몇가지
드라이버 강도 종류	XXX ~ R6까지 36가지	S, SR, R, L 등 몇가지
우드/아이언 강도종류	XXX ~ R6까지 36가지	S, R 두가지 안팎
아이언무게 (9번 기준)	남 333g 여 312g	남 351g ~ 395g 여 326g ~ 368g
아이언 샤프트 종류	0.335 inch 최초 2~11번까지 번호별 샤프트	대부분 한가지 길이를 번호별로 잘라서 사용
헤드 무게 조정	120가지 헤드 무게로 헤드 교환 납을 사용하지 않음	납을 첨가하여 무게조정
드라이버 100yd 골퍼	스윙웨이트가 A8까지 있어서 누구나 딱 맞는 가벼운 클럽이 있다	무거워서 치기 불편하다

뉴노멀 시대에도 일자리가 진리다

서울 여의도 IFC몰 지하 CGV 여의도점 입구에 들어서면 로봇이 다가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묻는다. ○○영화 상영관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관이라고 답해 준다.

잠실 롯데월드몰 3층 커피전문점 달콤 커피의 로봇카페 '비트'에 가면 로봇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려준다. 2018년 처음 선보인 '비트'는 현재 소풍몰, 대형마트,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7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그동안 일부 서비스업 매장에서 IT기술 맛보기로, 혹은 손님 관심 끌기 위해오던 로봇 서비스가 코로나19 이후 실제 영화관, 호텔, 카페, 식당 등에서 펼쳐지는 풍경이 됐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서비스 업종은 언택트(Untact·비대면) 서비스 도입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이 자명하다. 비대면 서비스가 확산되면 전염병 감염 부담이 줄어들어 안심되긴 하지만 그간 이 일을 해온 사람들은 결국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아닌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호텔 직원, 카페 알바로 일하던 사람들이 당장 일자리를 잃었다. 대학 마지막 학기를 남겨둔 K 씨는 지난해 말 서울 시내 4성급 호텔에 취업했다. 3개월의 수습 기간 중에 코로나19가 발생해 손님이 급감하자 단축근무를 하다 4월에는 한 달간 무급휴직까지 감내하고 5월 다시 출근했지만, 결국 1년 미만 입사자라 권고 사직을 당했다. 대학 휴학 중 서울 강남 영화관 옆 카페에서 바리스타 아르바이트

데스크칼럼

이효영

부국장 겸 유통비이오부장



를 하던 L 씨는 코로나19로 영화관 손님이 급감하자 알바 인원을 줄여야 한다는 카페 방침에 따라 해고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화로 접어드는가 싶더니 다시 클럽발 확진자 증가로 불확실성이 고개를 들면서 종식으로까지 가는 길은 아직 난망이다. 오히려 코로나의 위협이 장기화, 일상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함에 따라 코로나가 초래한 우리 일상의 혁명적인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시급해 보인다.

앞으로 설사 코로나 광풍이 종식된다 하더라도 이제 전 세계는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하게 돌아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질서, 이른바 '뉴노멀'은 불가피하다.

코로나19는 치료제도, 백신도 언제 개발될지 알 수 없는 만큼 치료제·백신 없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비대면 문화는 그만큼 더 깊게 뿌리내리게 된다. 포스트 코로나의 가장 확실한 새 질서는 비대면 사회의 등장이다. 온라인 개학부터 화상회의, 온라인 종교활동, 원격진료, 드론 배송, 로봇 서비스 확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하던 현상들이 한꺼번에 우리 일상으로 혹 들어와 버렸다.

그런데 비대면 사회와 4차 산업의 특세 등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은 기존 산업에 타격을 가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실업은 필연적인 수순이 된다. 이미 타다 불법화, 원격진료 불가 등 디지털 추세와 역방향으로 돌진하는 사례들이 국내 도처에 널려 있다. 실업을 최소화하면서 일자리를 지켜 내려면 전통 산업과 신산업의 충돌 과정에서 낡은 규제를 빠르게 없애 시간과 인력 등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산업구조와 사회의 변화, 소비 활동 등이 새롭게 재편되는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실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통해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경제는 한편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것이지만 한편으로 기존 일자리를 많이 없애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이들을 어떻게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해주고,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일자리가 의지나 선언만으로 만들어지거나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움직이고, 새로운 상품과 시장이 만들어지고, 소비가 뒤따라야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무리 많은 것이 바뀌고, 어떤 뉴노멀이 등장하더라도 결국은 일자리가 진리다. hylee@

사설

수출·고용 바닥없는 추락, 걸도는 경제계 호소

관세청 집계에서 5월 들어 10월까지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6.3%나 줄어든 69억 달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토막 수준이다. 연후로 조업일수가 지난해보다 1.5일 적었던 것을 감안해도 하루 평균 수출액이 30.2%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26억32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바닥을 모르는 추락세를 보이고 있다.

주력 품목과 시장 모두 엉망이다. 승용차가 -80.4%의 감소를 나타낸 것을 비롯, 석유제품 -75.6%, 무선 통신기기 -35.9%였다. 그나마 버텨 주었던 반도체도 -17.8%로 꺾였다. 시장별로는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율이 -29.4%였고, 미국 -54.8%, 유럽 연합(EU) -50.6%, 베트남 -52.2%, 일본 -48.4%로 수직 하락했다. 해외의 코로나 확산세가 여전히 멈춰지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수요 위축에 따른 수출 감소폭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4월부터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하면서 수출경제 피해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수출과 소비냉각에 따른 고용시장 붕괴도 필연적이다. 고용부가 11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에서 지난 달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3만2000명(33%) 증가한 12만9000명이었다. 급여지급액도 9933억 원으로 1998년 관련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치다.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전년보다 3만9700명 줄었다. 대량실

직이 진행중이고 신규 취업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코로나 사태로 경제와 산업 기반, 글로벌 시장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지만 뾰족한 대응책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또다시 국회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법안들을 하루빨리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9개 과제·11개 법안을 '20대 마지막 국회에 바라는 입법과제'로 선정했다. 긴급 현안인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신사업 촉진을 위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인세 법과 소득세법, 설비투자 연구개발(R&D)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다.

정부가 코로나 사태 극복과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목표로 추진키로 한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비대면 산업 육성 등에도 밀접하게 관련된 현안들이다. 대한상의가 국회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입법과제들을 건의하고 신속한 처리를 호소한 것은 그동안 수십 차례다. 그런데도 국회의 외면으로 진전을 보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법안들이 대부분이다. 이달 말로 임기가 끝나는 20대 국회에서 주요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폐기된다.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된다 해도 언제 처리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한시가 급한 마당에 기업들의 어려움만 커지고 경제 위기 극복은 그만큼 멀어지게 된다.

하유미의 고공비행

산업부 차장



4년 전 한진해운의 악몽

한 한국 해운업 몰락을 조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당시 정부가 조선업계에 투척했던 수조원에 달하는 지원 규모의 10분의 1만이라도 한진해운을 살리는데 썼더라면 지금도 H마크가 새겨진 컨테이너선들이 전 세계를 누비며 글로벌 해운 시장을 휩쓸고 있을 수 있다. 또 한진해운의 알짜 노선들을 글로벌 경쟁 선사들에 빼앗기지 않았을 것이다. '국가 경제적 리스크'를 내세우며 대우조선해양을 적극 지원했던 정부가 한진해운에는 이중 잣대를 적용했다.

정부는 2018년 뒤늦게서야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미 한진해운은 사라졌고, 한국의 글로벌 해운 경쟁력이 나락으로 떨어진 뒤였다. 많이 뒤늦은 때였다.

더욱 안타까웠던 점은 우리 정부가 해운업에 대한 무지와 외면으로 일관하는 동안 다른 국가 정부들은 자국 선사들을 목숨걸고 살려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세계 3위 프랑스 국적선사 CMA-CGM이다. 이 선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파산위기에 처하자마자 정부로부터 국부펀드를 통한 지분 투자방식의 자금 지원을 받아 여전히 '글로벌 TOP 3'를 지켜내고 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또다시 '한진해운 파산'과 같은 아픔이 되풀이 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역풍을 맞아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를 느낀 기업들은 도우미 손길을 끊임없이 요청해왔지만 정부는 한동안 이를 지켜만 봤다. 기업들의 하소연이 극에 달하자 정부는 '기간산업 40조 원 지원'이라는 대책을 내놔다.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게다가 이 역시 6월이나 돼야 실행에 옮겨질 것 같다. 심각성을 인지하자마자 곧바로 톡 큰 지원을 결단한 다른 국가들과 너무나도 대조된다.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의 기반이 되는 기간산업을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해야 한다. 기간산업의 몰락은 기업뿐 아니라 국가 수준까지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한진해운 파산 사태도 단순히 우리나라의 한 기업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40여 년간 깔고 닦아온 글로벌 해운시장의 네트워크와 노하우, 화주 등과의 신뢰가 깨지며 한국의 해운 경쟁력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하다. 더 이상 제2의 한진해운 사태를 만들지 말자. jscs508@

오늘 우리의 한 토막

맞추다와 맞히다

"친구들과 여행 일정을 맞춘 뒤, 출발 시간을 6시로 맞춰 놓고, 남은 시간에 퍼즐 맞추기 게임을 했다" "아이의 팔에 주사를 맞추고 나서,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과녁 맞추기, 퀴즈 정답 맞추기 게임을 했다" 등 일상 대화 속에서 우리는 여러 의미로 '맞추다'라는 단어를 쓴다. 그런데 앞에서 사용된 '맞추다'가 모두 맞는 표현일까.

맞추다는 '둘 이상의 일정한 대상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여 살피다'는 뜻이 있다. 또 '시간 등을 정해진 기준과 일치하게 하다' '서로 떨어져 있는 부분을 제자리에 맞게 대어 붙이다' 등의 의미도 있다. 따라서 첫 번째 예시문에 있는 '일정을 맞춘 뒤' '6시로 맞춰 놓고' '퍼즐 맞추기'라는 표현은 모두 맞다.

이러한 맞추다는 한때 '마추다'와 양립하여 쓰였다. 어릴 적 양복점이나 양장점 앞을 지날 때 '마춤 와이셔츠' '마춤 양장'이라고 쓰인 문구를 본 적이 있다. '마춤'의 기본형인 '마추다'는 '일정한 치수나 규격대로 만들도록 미리 맡기다, 약속하다'라는 뜻이었다. 이와 함께 쓰인 '맞추

다'는 '어긋남이 없이 꼭 맞도록 하다, 갖다 대어 붙이다, 정도를 알맞게 하다'라는 의미였다. 그런데 두 단어를 구분하여 쓸 필요가 없어지자 1988년 개정된 한글맞춤법에서 '마추다'는 버리고, '맞추다'로만 통일하여 쓰도록 했다.

한편 '맞히다'는 '맞다'의 사동사(使動詞)이다. '맞히다'는 '침, 주사 따위로 치료를 받게 하다'는 뜻이 있다. 또 '물체를 쏘거나 던져서 어떤 물체에 닿게 하다' '문제에 대한 답을 틀리지 않게 하다' 등의 의미도 있다. 두 번째 예시문에 나온 '맞추다'의 활용형은 내용상 '맞히다'의 뜻이므로 모두 틀린 표현이다. '주사를 맞히고 나서' '과녁 맞추기' '정답 맞추기'라고 해야 맞다.

이렇듯 맞추다와 맞히다는 의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 써야 한다. 헷갈린다면 두 단어의 쓰임을 기억하면 된다. '맞추다'는 둘 이상을 비교하여 살피거나 일정 기준에 맞게 갖다 대어 붙이는 뜻으로, '맞히다'는 틀리지 않게 하거나 적중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신미라 편집부 교열팀 차장 kleinki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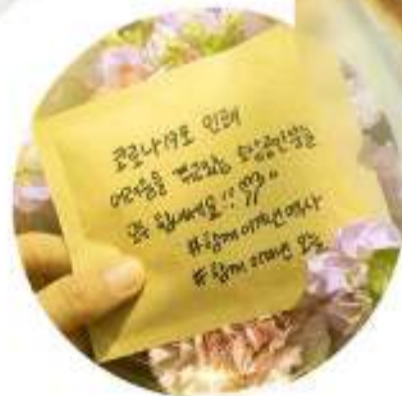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세상을 바꾸는 금융



세계가 주목한 대한민국 뒤편 국민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성공적으로 선거를 치뤘내고 20개국 정상들이 앞다투어 노하우를 배우려 하는 나라 모든 하늘길이 막혔어도, 예외적으로 입국허가를 받는 나라 그 뒤편, 국민이 있습니다

더 필요한 이웃을 위해 마스크를 양보하고 따뜻한 기부와 자원봉사의 행렬이 끊이지 않는 국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함께 헤쳐나가는 국민의 모습이 70억 세계인의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는 자랑스러운 국민 곁에 KB금융그룹이 늘 함께하겠습니다